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9호 | 2024 여름

포커스 I 전통적인 화이질서와 섬

포커스 II 제국의 시대와 섬

동북아역사포커스 제9호 (2024 여름)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9 Summer 2024)

동북아역사포커스

제9호 2024 여름

발행일 2024년 6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위가야, 이동욱, 조윤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글 김종근 동북아역사포커스 제9호 기획편집위원 4

| | |
|-------------|----------------------------|
| 특별기고 | 동아시아 속 한국 섬의 역사 9 |
| | 고석규 전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사학과 명예교수 |

| | |
|-----------------------------------|---|
| 포커스 I 전통적인 화이질서와 섬 | 충절의 상징에서 수호신까지: 우리 역사 속 전횡도 이야기 24 |
| |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
| | 조선의 가도와 명의 동강진 35 |
| |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 | 쓰시마의 역사·지리와 한일 관계 49 |
| 이해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 |
| 오кина와에서 마주한 고려 삼별초의 역사 64 | |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독도체험관장 | |
| 데지마로 본 일본과 네덜란드 관계 74 | |
| 신동규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

| | |
|------------------------------------|--------------------------------|
| 포커스 II 제국의 시대와 섬 | 사할린섬과 안톤 체홀 92 |
| |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 | 삼도, 포트 해밀턴, 그리고 거문도 103 |
| 한승훈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
| 오가사와라제도의 역사와 조선 망명자의 유배 117 | |
|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

| | |
|-----------------|---|
| 체험! 역사현장 |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 국립해양박물관 131 |
| | 백승욱 부경역사연구소 소장, 전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2024년 『동북아역사포커스』 여름호에서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주제로는 무수히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겠지만, 크게 중화(中華)를 중심에 둔 화이질서와 관련된 섬 이야기와 서양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진출과 관련된 섬 이야기를 큰 주제로 잡아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커스 I」에서는 ‘전통적인 화이질서와 섬’이란 주제로 전횡도, 가도, 쓰시마, 오키나와, 데지마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포커스 II」에서는 사할린섬, 거문도, 오가사와라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우선 「특별기고」에서는 고석규 전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전통시대 한국의 섬에 대해 쓴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사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인 고석규 전 총장은 동아시아 역사의 맥락에서 바라본 한국 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명이 들어선 이래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경시하는 인식과 해금책을 펼쳤고, 조선과 일본 또한 이러한 정책을 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주요 원인에 왜구가 있었는데, 조선 조정은 두 차례 왜구에 대한 토벌과 더불어 왜구가 한반도로 침략하는 중요 길목인 완도 가리포에 군사기지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 이후 삼도수군통제영(통제영, 지금의 통영)이 설치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국 관계에서는 청 강희제 때 해금정책 완화로 서해안에 나타난 해적 및 밀무역선인 황당선(荒唐船)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이 해안선 방어전략을 강화했음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는 왜구와 황당선에 대응해 주요 섬에 대한 수도(搜討)를 시행하고 섬에 군사기지인 진(鎭)과 행정구역인 군(郡) 설치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개화기에 이르러 전라도에 섬으로만 구성된 군이 실제로 설치되었음을 전합니다.

「포커스 I」에서는 전통시대 화이질서 속 동아시아의 섬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 글은 김종근 재단 독도연구소장이 쓴 전횡도(田橫島)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靑島) 인근에 위치한 이 섬은 사마천의 『사기』에 언급된 ‘전횡(田橫)의 고사’와 관련 있으며,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충절과 의리를 상징하는 섬입니다. 이러한 전횡의 고사는 여러 문객이 불사이군(不事二君), 즉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려 말 조선 초 및 청이 중원을 차지한 시기에 빈번하게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황해에 위치한 외연도, 녹도, 소청도 등지에서 전횡이 수호신 내지 풍어의 신 등으로 모셔진 점 등 우리 역사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두 번째 글은 장정수 재단 연구위원이 가도(槓島)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도는 조선의 섬이었지만 명·청과의 변경지대에 있었으며, 명과는 해상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후금이 요동을 차지한 이후 명 장수 모문룡(毛文龍)은 이 섬에 동강진(東江鎭)이라는 군사기지를 장기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호란 이후 조선에서 북벌론이 나타나자 청이 이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역사 속 변경지역, 특히 변경의 섬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세 번째 글은 이해진 동국대학교 HK연구교수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쓰시마섬(對馬島)의 역사를 7세기부터 1876년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시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쓰시마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섬의 역사 자체가 한일관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쓰시마 사람들이 스스로를 조선 중심의 질서에 예속되었다고 인식하다가, 에도막부가 등장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포함되어 대륙을 향한 최전선에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네 번째 글에서는 도시환 재단 독도실장이 오키나와(沖繩)의 간략한 역사 및 삼별초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학계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주목할 점은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기와입니다. 이 기와는 삼별초가 진도 혹은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 패한 뒤 퇴각한 곳이 오키나와였을 가능성 및 삼별초가 이때 오키나와에 성곽 건설 등의 문화를 전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 유물로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대 해양교류사 측면에서 오키나와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위치한 데지마(出島)입니다. 신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이 글에서 데지마의 탄생 및 네덜란드와 에도막부 간 단일무역 성립, 데지마의 운영 및 생활 양태, 난학(蘭學)의 탄생, 그리고 근세 시기 일본·네덜란드 관계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데지마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특히 데지마가 원래는 기독교를 포교하던 포르투갈인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매년 데지마 이용료를 현재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 지불했고, 네덜란드 상관장이 19세기 동안 매년 세계 각국의 정보를 작성하여 막부에 제공한 이야기 등은 흥미롭습니다. 아울러 일본 학계의 ‘일본형 화이질서’에 대한 비판 또한 주목할 내용입니다.

「포커스 II」에서는 서양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진출과 관련된 여러 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섬은 사할린섬입니다. 김영수 재단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사할린섬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소개한 후,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홉이 쓴 『사할린섬』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현실에서의 고민을 정리하기 위해 유형식민

지(penal colony)인 사할린섬을 방문한 체홉은 죄수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글은 거문도에 얽힌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승훈 부산대학교 교수는 이 글의 제목을 ‘삼도, 포트 해밀턴, 그리고 거문도’라 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이 세 이름에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글 초반에 거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과 이들 지명이 밀접한 관련을 지녔음을 설명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거문도의 현지인들은 영국의 점령을 ‘침략’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해밀턴 테니스 코트’, ‘거문도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우호적인 감성으로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령 당시 영국군의 덕택으로 원주민들이 기근을 해결하거나 인력 동원 시 적절한 비용을 보전받았던 점 등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영국이 원주민을 축출하고 거문도를 해군기지로 재편하려 한 계획이 있었음을 언급하여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글은 일본 도쿄도의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입니다. 박한민 재단 연구위원은 현재도 일본 도쿄에서 배로 24시간 꼬박 걸려 도착하는 오지인 오가사와라제도의 지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 섬의 소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 영국 사이의 역사적 갈등 양상, 그리고 1876년 이후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 편입 과정을 설명합니다. 특히 김옥균과 유길준이 이 섬에 유배되었던 사실과 관련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직접 발굴한 다양한 사료를 제시합니다. 북태평양에 떠 있는 일본의 오지 섬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역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신선한 방식으로 보여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체험! 역사현장」에서는 백승옥 전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국립해

편집자의 글

양박물관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는 2012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와 목적, 입지와 건물, 조직·직원, 중요 전시실, 대표 소장 자료인 아담스 일가(Adams Family)의 천구의·지구의 세트, 더들리(Robert Dudley)의 해도첩 『바다의 신비』,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교육프로그램 등 박물관 상황 전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독자 여러분에게 전통시대 동아시아 해양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역사 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9호 기획편집위원

김종근

동아시아 속 한국 섬의 역사

고석규 전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사학과 명예교수

1. 해양 방어와 섬의 역사

전통시대에 섬은 주로 군무(軍務)의 대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民事)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군무는 해방(海防), 즉 해양 방어이며 이는 외부 세력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민사 또한 해방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시각에서 바라보며 군무, 즉 해방과 관련된 섬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바다를 통해 침입해 온 세력은 일본과 만주, 몽골, 해적과 황당선(淸) 또는 해도에 은거한 역도(逆徒), 그리고 서양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따라 해방의 주요 지역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남해, 서해 남부·북부, 그리고 압록강·두만강을 아우른 양강(兩江) 등이었다. 동아시아 속 한국 섬의 역사에는 이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특별기고

이를 개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하지만 모두를 개관하기에는 지면도 모자라고 필자의 역량도 부족하여 부득이 주제를 좁혔다. 동북아시아, 그중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한국 섬의 역사를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개관해보고자 한다. 울릉도는 독도와 더불어 현재의 가치 때문에 특별히 주목되지만 이미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양해 바란다.

2. 중륙경해의 인식과 해금

동아시아 섬의 역사에 육지 중심, 즉 중륙경해(重陸輕海)의 인식과 더불어 해금(海禁)정책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중국은 대륙국가로 농업 중심의 국가 경영을 기본으로 해왔기 때문에 광활한 육지가 우선이었고 해양은 뒷전이였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서방문명을 남색(藍色)의 해양문화라 하고, 동방문명을 황색(黃色)의 대륙문화라 하여 대비하곤 한다. 그런 차이를 낳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 해금정책의 영향이 컸다.

중국의 해금정책은 명 태조인 홍무제 4년(1371) 해금령의 반포로부터 시작되었다. 해금정책 실시의 이유는 원말 명초의 혼란기에 중국의 동남 연해를 중심으로 활동한 방국진(方國珍) 등 해상 군사세력 때문이었다. 왜구의 존재 역시 명초 해금 실시의 배경이었다.

청 초기인 강희제 순치 13년(1656)에도 해금령을 반포하였고, 이어서 순치 18년(1661)에는 연해지역에 천계령(遷界令)을 내려 해금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배경에는 푸젠성(福建省) 샤먼(廈門)에 거점을 두고 있던 정성공(鄭成功)의 해상 반청세력의 위협이 있었다. 이처럼 명·청 모두 건국 초

특별기고

기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금정책을 실시하였다. 해양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그 후로도 지속되었다.

15~16세기 유럽이 이른바 ‘대항해시대’를 열어 신향로와 신대륙 발견에 거침없이 나설 때 중국은 해금을 실시함으로써 시대 조류에 역행하였다. 그 여파는 근대 이후 중국의 역사 전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해금정책은 중국에만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해금도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나타났다. 고려 말 왜구의 침탈에 대한 대응으로 섬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킨 공도정책(空島政策) 역시 해금조치의 일환이었다. 바다로 들어오는 외부의 적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하나였다. 고려를 이은 조선도 해금정책을 이어가면서 오랜 기간 해금의 시대를 맞았다. 일본도 그런 국제정세 속에 예외는 아니었다.

3. 일본과의 관계 속 섬의 역사

(1) 여말 선초 왜구의 준동과 대응

여말 선초는 물론 임진왜란 때까지 대외관계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 즉 왜구였다. 왜구가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 1350년(충정왕 2) 2월부터였다. 이때부터 왜구의 침탈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여말 선초 약 70년간 우리 연안 각지에 왜구가 난입하였다.

왜구의 끊임없는 준동으로 인하여 급기야 섬 지방에 있던 군현의 읍치(邑治)를 내륙으로 옮겼다. 정부는 왜구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지킨다는 뜻으로 섬 주민의 육지 이전, 즉 공도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섬을 비운다고 해서 조선 정부가 섬 자체를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다.

“
공도정책이 섬을 비워 백성을 보호하는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해도자생(海島資生)은 보다 적극적인 방어책이었다.
”

공도정책이 섬을 비워 백성을 보호하는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해도자생(海島資生)은 보다 적극적인 방어책이었다. 1388년(우왕 14) 조운흘(趙云 仵)이 서해도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로 부임하면서 글을 올려, 토지가 비옥하고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는 섬들이 지금 공도정책의 여파로 버려져 있음을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섬을 식읍으로 주어 장수와 군관이 알아서 섬을 지키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다. 말하자면, 섬의 이익을 주어 자발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게 하자는 건의였다. 이것이 해도자생론이었다.

이렇게 해도자생을 통해 왜구를 막아내거나 나아가 동정(東征: ‘동방을 정벌한다’는 뜻으로 대마도 정벌을 가리킴)과 같이 정벌을 통한 군사적 방어까지도 나타났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왜구에 대해 회유책과 강경책을 번갈아 썼지만, 기대한 것만큼 왜구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군사행동, 즉 동정을 감행하였다. 조선에서는 두 차례의 동정이 있었다.

1396년(태조 5) 12월 3일, 태조가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을 5도병마도통처치사(五道兵馬都統處置使)에 임명하고, 남재(南在)·신극공(辛克恭)·이무(李茂) 등과 함께 5도의 병선을 모아서 일기도(一岐島)와 대마도를 치게 하였다. 이는 왜구의 근거지를 초토화시켜 왜구의 만행을 문책하기 위해 실시한 군사적 징벌이었다. 김사형은 이듬해 1월 30일 임무를 마치고 돌아

특별기고

왔다. 이후 한동안 왜구의 출몰은 뜸하였다.

1419년(세종 1)에 이르자 왜구가 다시 늘어났다. 이에 또다시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이것이 기해동정(己亥東征)이다. 그해 6월, 삼군도체찰사에 임명된 이종무(李從茂)는 9명의 절제사와 함께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있는 병선 227척과 병사 1만 7,000명을 거느리고 거제도 남쪽에 있는 주원방포(周原防浦)에서 출발해서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기해동정으로 왜구는 사라졌고 상왜(商倭)나 객왜(客倭) 등이 평화적으로 왕래하였다. 기해동정은 왜구를 종식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해도사생에서 나아가 군사적 대응으로 동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말 선초 왜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에 조선의 섬과 연안의 백성에게도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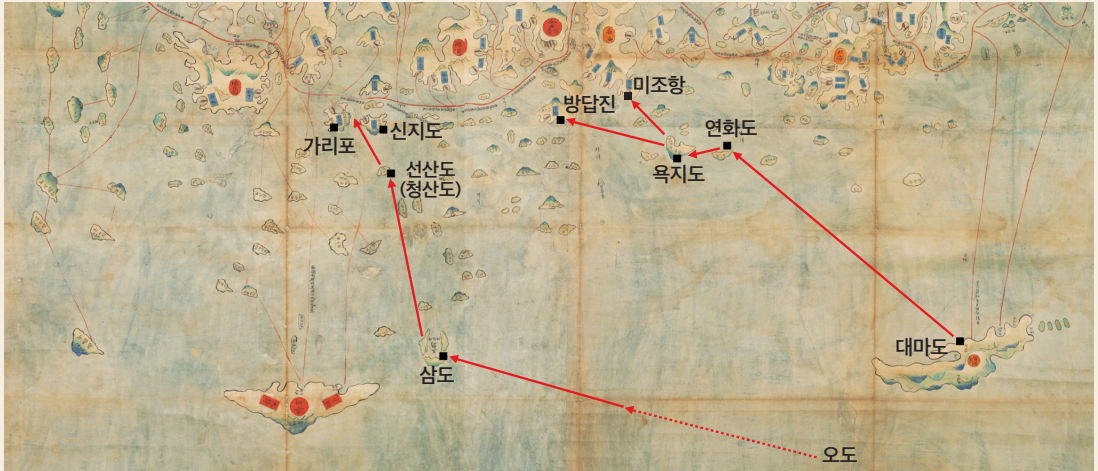
(2) 조선 전기 왜침과 완도 가리포진의 탄생

왜침은 그 후에도 일어났다. 임진왜란 전까지 있었던 주요 왜침으로는 녹도왜변(1497년, 연산 3), 삼포왜란(1510년, 중종 5), 사랑진왜변(1544년, 중종 39), 을묘왜변(1555년, 명종 10), 손죽도왜변(1587년, 선조 20) 등을 꼽는다.

왜구가 조선에 침입해 들어오는 바닷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 이항복(李恒福)은 「왜구 대책」에서 “오도(五島)¹에서 동남풍을 타고 삼도(三島)로 와서 밤을 지내고 선산도(仙山島)를 지나 바로 고금도(古今島)와 가리포(加里浦) 등의 방면으로 들어오거나, 대마도에서 동북풍을 타고 연화도(蓮花島)와 육지도(浴知島) 사이에 이르러서 밤을 지내고 곧장 남해의 미조(彌助)·방답

1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에 딸린 군도.

특별기고



〈삼남지도(三南地圖)〉에 표시한 조선 전기 왜구의 침략 해로(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소장)

(防踏) 등 지방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전라도로 입구(入寇)하는 데 익힌 수로(水路)이다”²라고 하여, 왜구가 전라도로 침략해 들어오는 두 바닷길을 거론하였다.

당시 왜구의 근거지 중 하나가 오도였다. 이들 왜구의 침략로 중 연화도를 거치는 길은 왜적이 전라도로 들어오는 익숙한 길이지만 수로가 멀고 노출되기 쉬운 데 반해, 삼도를 통하는 길은 눈에 띄지 않고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 후자가 안전하지만 노출되기 쉬운 저속 해로였다면, 전자는 거칠지만 신속하고 은밀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해로였다. 따라서 삼

2 『萬機要覽』軍政4 海防 日本相通海路.

특별기고



〈호남지도(湖南地圖)〉에 그려진 가리포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큰 바다 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완도객사 출입문에 걸린 '호남제일번' 현판(완도문화원 제공)

특별기고

도로 직진하는 경로의 방어가 더 긴급했다.

왜구의 침략로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곳은 고금도 밖 외해였다. 따라서 수군진을 보다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전진 배치에 적합한 곳이 바로 완도의 가리포였다. 이에 1522년(중종 17)에 가리포 수군진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가리포진을 강화해가며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고, 아울러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 바닷길 방어에 진력하였다. 이에 따라 가리포진은 호남에서 가장 큰 수군진으로 발전하여 갔다.

이순신이 정유재란 직전인 1596년(선조 29) 윤8월 24일, 가리포에 와서 부찰사 한효순, 우우후 이정충(李廷忠)과 함께 남쪽 망대(남망봉, 해발 150m)로 올라가서 보고, “좌우에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들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호남의 제일 요충지이다”³라고 하였다. 호남 제일의 요충지, 이 말이 가리포진의 위상을 결정짓는 상징적인 문구가 되었다. 196대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홍선(洪璡)은 독진(獨鎭) 승격을 기념하여 ‘호남제일번(湖南第一藩)’이란 현판 휘호를 써서 객사 입구문에 걸었다. 가리포진은 6개의 진을 거느리는 최대 거진이었다.

(3) 조선 후기 삼남제일거진 통제영의 설치

17세기 전반에는 일본의 침입 위협으로 수군방어체제가 영남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그 결과는 통제영의 설치였다.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7월에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좌수영 본영을 한산도로 옮

3 『이충무공전서』 권7, 「난중일기」 3(1596), 윤8월 24일.

특별기고

겼다. 이어 조정에서는 8월 1일에 이순신을 좌도수사로 전라도·경상도·충청도 수군을 통괄하는 삼도수군통제사로 삼아 삼남 수군의 지휘 계통을 일원화하였다. 통제사의 본영은 삼도수군통제영 또는 약칭으로 통제영, 통영이라 했다. 통제사 이순신의 주둔지였던 여수가 통제사의 본영 역할을 했고, 한산도 역시 통제사의 진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1603년(선조 3) 이경준(李慶濬) 통제사가 통제영을 두룡포(현 통영시 관내)로 정하고, 1605년(동 38년) 7월 14일 통제영을 완공하였다. 통제영의 규모는 일반 수영보다 훨씬 컸다. 1607년(선조 40)에는 통제사가 경상우수사를 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품계도 정3품에서 종2품으로 승격했다. 통제영은 명실상부한 삼남제일거진(三南第一巨鎮)이 되었다.



금오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의 섬

오른쪽 남해군과의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이 노량이며, 왼쪽 10시 방향으로 멀리 한산도가 있다.

“

통제영의 규모는 일반 수영보다 훨씬 컸다. 1607년(선조 40)에는 통제사가 경상우수사를 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품계도 정3품에서 종2품으로 승격했다. 통제영은 명실상부한 삼남제일거진이 되었다.

”

4. 중국과의 관계 속 섬의 역사

(1) 조선 후기 황당선의 출몰과 서해 해방

조선 후기 해방을 논할 때,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요해처로는 “영남의 거제·남해·가덕·다대포, 호남의 가리포·위도·고군산, 호서의 원산(元山)·안흥, 해서의 백령(白翎)·소강(所江), 관서의 광량(廣梁)·선사(宣沙) 같은 곳”을 꼽았다. 모두 섬과 연관된 곳이었다.

이때 가장 큰 변수는 청의 황당선(荒唐船)이었다. 청에서는 1656년(효종 7) 천계령과 1661년(현종 2) 해금령을 발동하였다. 따라서 그 기간에 황당선 문제는 없었다. 그 후 강희제 때인 1684년(숙종 10)을 기점으로 중국 동남 연해 각 성의 해금을 풀고 전개령(展界令)을 반포하여 개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때부터 중국 연해지역의 해상무역은 신속히 회복되었는데, 이 틈을 타 그동안 잠잠했던 연해지역의 해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또 청의 어선과 밀무역선도 수시로 와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거나 해안에 상륙하여 밀교역을 하며 주민과 충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황당선이 출몰하는 지역은 주로 초도(椒島)·조니진(助泥鎭)·오차포·장연·웅진·백령도 등지로 황해도에 속했다. 조선 서해에 황당선의 출현은 1682~1683년(숙종 8~9), 즉 강희 21~22년으로 정씨 세력을 제압하기 직

특별기고



『대동여지도』에 표시한 황당선 주요 출몰 지역과 관방 요새처

전 시기부터 시작되어 1694년(동 20)부터 잦아지더니 1701년(동 27) 이후 급증하여 숙종 말인 1720년경까지 지속되었다. 1701년은 황당선 출몰의 분기점이었다. 이들은 선단을 구성할 정도의 대규모로 8~9척에서 10여 척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해방은 황당선에 집중되면서 서

특별기고

해 수비가 시급해졌다.

장산곶은 해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항해가 어려웠다. 따라서 황당선의 출몰은 상대적으로 웅진반도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웅진반도에 있으면서 서해와 맞닿아 있는 소강은 해방의 제일 요망지(瞭望地)이면서 관방(關防)의 요새(要塞)였다.

그런데 황해도에는 수사가 없었다. 이를 위해 방어영체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1675년(숙종 1)에 소강첨사가 방어사가 됨으로써 소강진이 방어영이 되었다. 소강방어사영 및 백령·허사·오차·등산·용매 다섯 진이 당시 해서(海西) 수군의 주력이었다.

1718년(숙종 44) 11월에는 소강첨사가 황해도 수군절도사가 되었고, 웅진현감을 부사로 삼아 수사를 겸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719년(숙종 45) 소강방어영이 황해도 수영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황해도 장연현에 속했던 백령도 일대(현 인천광역시 옹진군)는 해안 방비에 긴요한 지역이었다. 이곳에 설치된 백령진은 서해 국경의 요진(要鎭)으로 만포(滿浦: 평안북도 강계군 만포읍에 있었던 국경 요진)·부산과 함께 변지의 3진으로 꼽힐 만큼 국경 수비의 요해처였다.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지금도 백령도는 여전히 국방의 최전선에 서 있다.

(2) 해방의 강화와 수토군·추포무사의 설치

황당선을 비롯한 해적 등은 중국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때문에 황당선의 경우 청 예부의 회자(回咨)에 따라 표문(票文)만 빼앗고 즉시 쫓아내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황당선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와 서로 번갈아 가며 출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이른바 ‘상국(上國)의 백성’이라 그저 망

“
추포무사는 황당선의 연안 접근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추포선을 타고
추격해 잡는 임무를 지닌 조직이었다. 그 활동지역은 황해도였다.
추포무사의 역할은 황당선의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더욱 커졌다.
”

보다 쫓아내는 정도에 머물렀다.

1716년(숙종 42)에는 32척의 황당선이 협선(挾船)까지 이끌고 서해로 들어오는 일도 생겼다. 배 1척에 선원이 70~80명, 큰 배는 100여 명까지 승선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전에 없던 일로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여 즉시 요망하고 추적하는 일 등을 각별히 거행하게 하였다.

황당선의 출몰은 영조 대에도 이어졌다. “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배가 몇백 척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다. 어족 자원이 서해로 이동하면서 황금어장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황당선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따라 수도군(搜討軍) 운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수토’란 국가에서 관리를 섬 지역에 파견하여 그 형편을 조사하고 몰래 들어가 있는 백성이나 왜구 혹은 황당선이 있는지 수색하여 토벌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1736년(영조 12) 1월에는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황해수사 이한필(李漢弼)의 장계를 거론하면서 추포무사(追捕武士)의 신설을 건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다. 추포무사는 황당선의 연안 접근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추포선을 타고 추격해 잡는 임무를 지닌 조직이었다. 그 활동지역은 황해도였다. 추포무사의 역할은 황당선의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더욱 커졌다. 그 수는 최초 200명 선에서 700명으로 늘었는데, 다시 더 늘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추포무사의 부담이 무거워져 폐단이 커졌다.

5. 조선 후기 섬의 자생과 설진·설군

해도자생에 기반을 둔 설진(設鎭) 논의에 따라 17세기 서남해 섬 지역에 수군진을 설치하였다. 이때 설치된 수군진은 총 6개였는데, 이 중 17세기 전반에 1개 진이 설치된 반면, 후반에는 5개 진이 설치되었다. 설치지역 6곳 중 5곳이 섬이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해서와 경기 지역의 해방 거점에도 서남해 섬과 같이 독진(獨鎭)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는 해도자생론의 실천이었고, 해방대책의 일환이었다.

해도자생에 기반을 둔 이러한 설진 논의는 섬만으로 이루어진 행정 단위인 군(郡)의 설치, 즉 설군(設郡) 논의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1896년 2월 3일, 연해제도(沿海諸島)에 군을 두는 칙령 제13호를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부·나주부·남원부의 여러 섬을 나누어 세 구역을 정하고, 완도군·돌산군·지도군 등 세 군을 두었다. 이로써 섬은 수륙일관(水陸一觀)의 정신에 따라 육지와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고석규(高錫珪, Ko, Seok-kyu)

전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사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석·박사를 마치고 1995년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교수이다. 제6대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도시사학회, 호남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14 자랑스런 서울대 사학인'으로 선정되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도서·해양문화를 특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민속원, 2021)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포커스 |

전통적인 화이질서와 섬

**충절의 상징에서 수호신까지:
우리 역사 속 전횡도 이야기**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조선의 가도와 명의 동강진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쓰시마의 역사·지리와 한일 관계

이해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오кина와에서 마주한 고려 삼별초의 역사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독도체험관장

데지마로 본 일본과 네덜란드 관계

신동규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충절의 상징에서 수호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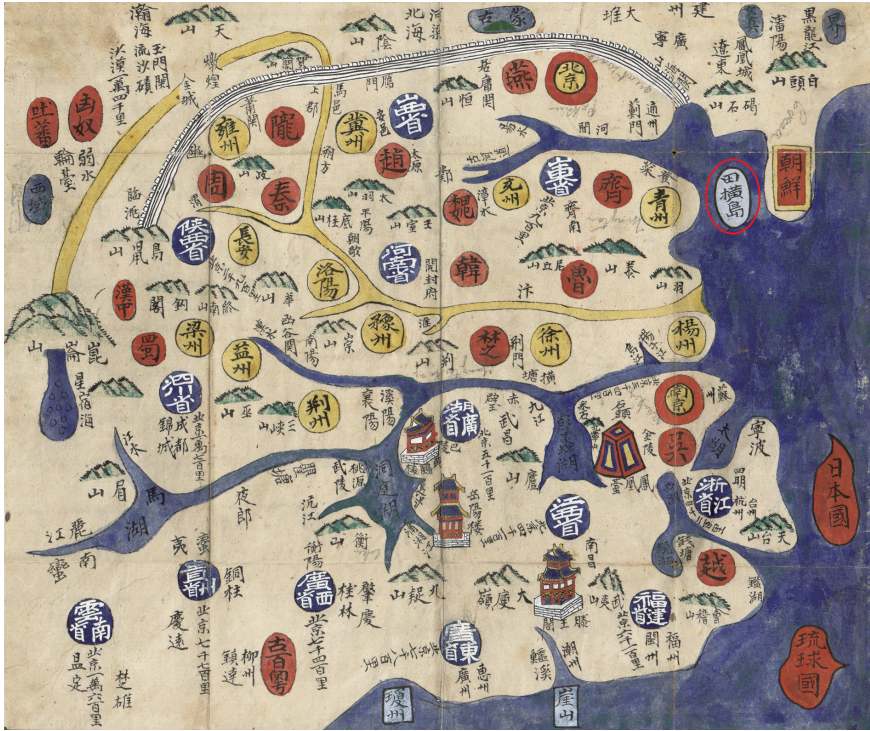
우리 역사 속 전횡도 이야기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1. 머리말

미국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에 소장된 『대조선지도』는 천하도와 조선전도, 조선팔도지도 및 중국, 일본, 유구 지도가 통합된 여지도(輿地圖) 계통의 지도책이며, 이 계통의 지도는 조선 후기 지도학사상 중요한 특징이다. 15세기 말 서구에서 아틀라스(Atlas)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세계지도에서 도별도 및 외국지도를 아우르는 지도의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대조선지도』에서 주로 조선 고유의 세계지도인 천하도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중국지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지도에는 당시 청의 지명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 및 중요 도시 명칭도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도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주



『대조선지도』 중국지도에 그려진 전횡도(미국의회도서관 소장)

된 목적이 ‘현재 중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이라 함은 주로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지도에 섬은 몇 개나 그려져 있는가? 일본과 유구라는 외국을 제외하고는 전횡도(田橫島) 하나만 그려져 있다. 이것은 전횡도가 중국 역사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섬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글에서는 전횡도를 소개하고, 이 섬이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전횡도는 산둥반도의 남쪽 칭다오시 지모구의
형먼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모시 와리향 동쪽 해안에서
다시 동쪽으로 3.5km 떨어진 길고 좁은 섬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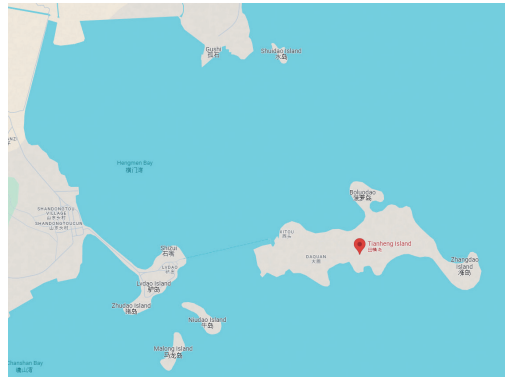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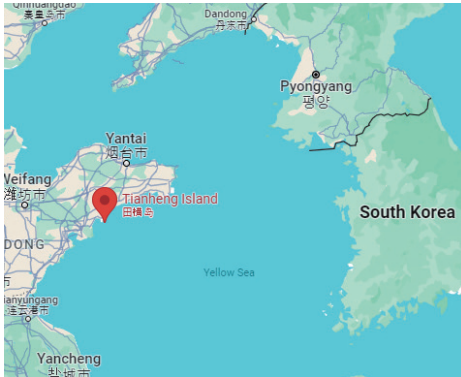
2.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전횡도

우리 역사에서 전횡도가 가지는 의미를 찾기 전에 우선 파악해야 할 점은 이 섬의 지리적인 실체이다. 전횡도는 조선에서 작성된 중국지도에도 실릴 만큼 중요했지만, 중국에서도 ‘전횡(田橫)’에 얽힌 옛 이야기가 서린 중요한 섬이다.

전횡도는 산둥반도의 남쪽 칭다오시(青島市) 지모구(即墨區)의 형먼만(橫門灣)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모시 와리향(窪裏鄉) 동쪽 해안에서 다시 동쪽으로 3.5km 떨어진 길고 좁은 섬이다. 수리적 위치는 북위 36°25'08", 동경 120°57'32", 총면적은 1.46km², 해안선 길이는 8km, 칭다오 부두와의 거리는 68km이다. 간조 시에 인근 섬과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 섬에는 전횡의 석상과 함께 전횡오백의사묘(田橫五百義士墓)가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다. 이 묘는 1982년에 칭다오시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무덤 북쪽에는 전횡 비석이 있고, 정자에 있는 들보와 기둥은 전횡의 500명 병사를 그린 여섯 개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 칭다오시 지모구의 어촌에서는 매년 3월 어구를 준비하고 선박을 수리하는 등 어업 준비를 시작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행사의 이름이 전횡제해절(田橫祭海節)이다. 2024년에도 4월 5일에 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포커스 I



산둥반도 남쪽에 위치한 전횡도(구글맵)



전횡 석상(바이두)과 전횡오백의사묘(www.culturechina.cn)



전횡제해절 행사(news.bandao.cn)

3. 역사 기록 속 전횡과 오백 문객 이야기

그럼 전횡도가 기념하고 있는 전횡과 오백 문객(門客)에 대해 살펴보자. 전횡은 기원전 250년에서 202년 사이에 살았던 진(秦) 말기의 인물이며, 한 고조인 유방(기원전 274~195)과 동시대를 살았다.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 소개된 「전담열전(田儋列傳)」에 따르면, 전횡은 삼 형제였는데 평민의 신분이었지만 번갈아서 제(齊)의 재상을 거쳐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진 말기 어지러운 시절에 유방이 황제로 등극하자 피살될 것을 두려워한 전횡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 500여 명과 함께 섬으로 피신하였다. 유방은 전횡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신을 보내어 회유하였다. 이에 전횡은 이 사신을 따라 한의 수도 뤼양(洛陽)에 가는 척하다가 당도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방이 그 소식을 듣고 섬에 남아

포커스 I



쉬베이홍의 <전횡오백장사>

있는 부하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사신으로부터 전횡의 비보를 접한 500여 명도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전횡도는 오호도(嗚呼島)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오호(嗚呼)’라는 감탄사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전횡의 이야기는 중국에서 『사기』뿐만 아니라 『한서(漢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등 역사책과 여러 문인의 개인 저술에서 언급되었으며, 20세기 초에는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대표적인 그림이 튀양으로 떠나는 전횡의 모습을 그린 작품 <전횡오백장사(田橫五百壯士)>이다. 이 작품을 통해 쉬베이홍(徐悲鴻)은 당시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과 국민당 정부의 횡포를 은유적으로 고발하였다.

4. 우리나라 문인들의 글에 재현된 전횡도

전횡의 고사에서 핵심은 사마천의 평가에서 드러난다. 그는 전횡을 고절(高節), 즉 높은 절개를 지닌 인물로 평가했고, 오백 문객은 의를 따른 이들로 말하였다. 사마천의 이러한 평가 이래 동아시아에서 전횡과 오백 문객의 스토리는 불사이군(不事二君), 즉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절개와 의리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시기에 전횡도의 사례가 문인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는데, 고려 말과 명청 교체기이다. 우선 이성계에 의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던 시점에 다수의 성리학자들이 전횡도를 언급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색, 정몽주, 이제현, 이송인, 권근, 정도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정몽주는 시〈오호도〉를 지었다.

오호도(嗚呼島)

삼걸은 헛되이 한의 신하 되었으니(三傑徒勞作漢臣)
당시의 공과 업적이 끝내 티끌 되고 말았네(一時功業竟成塵)
지금까지 오호도만 홀로 남아 있어서(只今留得嗚呼島)
언제나 행인들 눈물 가득 흘리게 하네(長使行人淚滿巾)

이 시에서 삼걸은 초한삼걸로, 소하(蕭何), 한신(韓信), 장량(張良)이다. 이 세 사람은 한 고조 유방의 신하였지만 모두 제거되어, 그들의 공과 업적은 흙먼지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전횡과 500명의 문사는 자결로써 절의를 지켜 역사에 길이 남아 오호도를 바라보는 행인들이 눈물을 적신다고 한 것이다. 정몽주는 전횡의 고절과 오백 문객의 충성을 오호도로 형

“
사마천의 이러한 평가 이래 동아시아에서 전횡과 오백 문객의 스토리는
불사이군(不事二君), 즉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절개와 의리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쓰여 왔다.
”

상화한 것이다.

한편, 신흘(申欽)은 1622년 해로로 연경(燕京)에 가는 동지사 이현영(李顯英)을 전송하며 시 2수를 지었다.

바닷길로 연경에 가는 동지사 이첨지 현영을 보내다

(別冬至使李僉知顯英泛海朝京)

백년의 오랜 세월 선비를 길러(養士百年久)
이공과 오공께서 동시에 났네(同時李與吳)
긴 바람에 만리의 물결 가르며(長風萬里浪)
한걸음에 연경을 향해 가누나(一蹶赴燕都)
남자라면 마땅히 이와 같거니(男子當如此)
우리 무리 자연히 외롭지 않네(吾徒自不孤)
철석의 간장에다 옛 검 있으니(肝腸古劍在)
이 몸 장부 아니라 말하지 마소(莫道我非夫)

언제나 이상한 건 전횡의 절사(常恠田橫士)
그 수효의 많기가 오백 인이네(多哉五百人)

포커스 I

그대 응당 이 섬을 지나갈 텐데(君應過此島)
끼친 공적 정신이 서려 있으리(餘烈亦精神)
바른 기운 천지에 남아 있다면(正氣乾坤在)
험한 길에 절의가 새롭고 말고(危途節義新)
걱정 많아 편안히 잠 못 이루니(艱虞寡安枕)
온 천하가 풍진에 붙여 있다오(天下屬風塵)

이 시가 지어진 시점은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요동을 차지해 조선에서 명으로 이동하는 육로가 막힌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사신단은 배를 타고 가야 했고, 배가 전복되는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 다수의 관리들이 사신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동지사 이현영은 두말없이 바다 사행길을 떠났다. 신흘이 그의 용기에 감복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당시 사신단이 배로 바다를 건너가면 전횡이 마지막으로 피난 간 섬인 전횡도를 지난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때문에 신흘은 자연스럽게 전횡의 고사를 이 시에서 읊었다. 그는 섬에 남은 오백 문객이 모두 전횡을 따라 자결한 것이 괴이하지만, 동시에 높이 추앙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날 이현영이 오백 문객이 남긴 공렬과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록 위험한 해로사행이지만, 오백 문객이 남긴 바른 기운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절의가 새로워질 것이라며 이현영을 위로하였다. 시의 가장 마지막에는 신흘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드러나 있다. 즉 비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세상이라서 자신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며, 오백 문객이 보여준 절의가 지금 세상에는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5. 황해 섬들에 수호신으로 모셔진 전횡

병자호란 이후 전횡의 이야기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자 전횡이 숨어들었던 전횡도가 조선에 있다는 풍문까지 돌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종 36년(1710)에 한 유생이 오호도가 우리나라에 있으니 제단을 쌓아 제를 지낼 것을 상소하였으나, 예조의 조사 결과 오호도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 17년(1741)에는 왕이 오호도가 충청도 홍주(洪州) 땅에 있다고 하니 이를 확인해 보라는 어명을 내린 기록이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관가와 사족층에서 전횡에 대해 언급한 이후 황해에 있는 섬들에서는 전횡을 수호신 혹은 풍어의 신으로 모신 사례가 발견된다. 충남 보령군 오천면의 외연도와 녹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어청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등지에는 전횡을 모신 사당이 존재한다. 그중 외연도에는 1936년에 전횡 장군의 사당이 만들어졌고, 전횡 장군이 놀았다는 자리 등과 같은 장소도 존재한다. 녹도에도 전횡 사당이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 운영하지 않는다. 어청도에는 치동묘라는 사당에 전횡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6.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중국지도에 등장한 전횡도가 현재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인근에 존재하는 섬이며, 중국에서도 전횡을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횡과 오백 문객의 스토리가 전통시대 중국 및 한국에서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 절의를 상징함을 확

포커스 I

인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려 말과 병자호란 이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전횡이 사대부들 사이에 자주 언급되었음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사대부층 이외 일반 서민 중에서도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황해의 섬들에 전횡을 수호신 내지 풍어의 신 등으로 모시는 민속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글 첫머리에서 본 조선 후기 지도첩인 『대조선지도』 내 중국지도에 전횡도가 중요한 존재로 그려진 점은 청의 등장 이후 조선에서 불었던 중화계승의식의 결과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주족이 세운 청을 중화의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를 명에 이은 중화 문물의 수호자로 여겼다. 중국지도에 전횡도를 그린 점 역시 ‘불사이군’의 감정을 드러낸 결과였던 것이다. 이 같은 조선인들의 인식은 단순히 사대주의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편문명으로서 중화문물의 계승자를 자임한 결과였다.



김종근(金鐘根, Kim, Jong-geu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 지리학 및 지도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동서양 고지도 속의 독도 및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지리학의 주요 연구과제인 지도와 지명에 관심이 많으며 역사지리학의 관점에서 이 두 주제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조선의 가도와 명의 동강진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가도(槪島)는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읍에 속한 섬으로, 해안선을 기준으로 남쪽 2km 지점에 있다. 면적은 19.2km², 해안선 길이는 42.94km로 흑산도(黑山島)와 비슷한 크기이며, 최고봉은 해발고도 345m의 연대봉이다. 인근 해역의 수심이 깊고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여 좋은 항구로 기능한다. 가도 인근 해상에는 대화도(大和島)·신미도(身彌島)·신도(薪島) 등이 배열되어 서한다도해(西韓多島海)를 이룬다. 서한다도해는 다시 북쪽으로 중국 요동반도 해역에 위치한 섬들과 점선의 형태로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이 섬들이 중국과의 해상교통로를 형성했다. 압록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육상교통로와 달리, 가도를 비롯한 일련의 섬들은 조선과 명·청의 경계이자 완충지대였

포커스 I

고 또 연결고리였다. 조선은 명·청과의 왕래를 위해서 주로 요동을 경유하는 육상교통로를 활용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바닷길이 활용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17세기 전반 후금(後金)의 흥기로 인해 조선과 명의 육상 교통로가 단절되었을 때 철산의 가도에서 산동의 등주(登州)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열린 사실이 유명하다.

가도는 당시 설치된 명의 동강진(東江鎭)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동강진의 설치 전후 가도의 존재 양태를 정리하고, 한중관계사에서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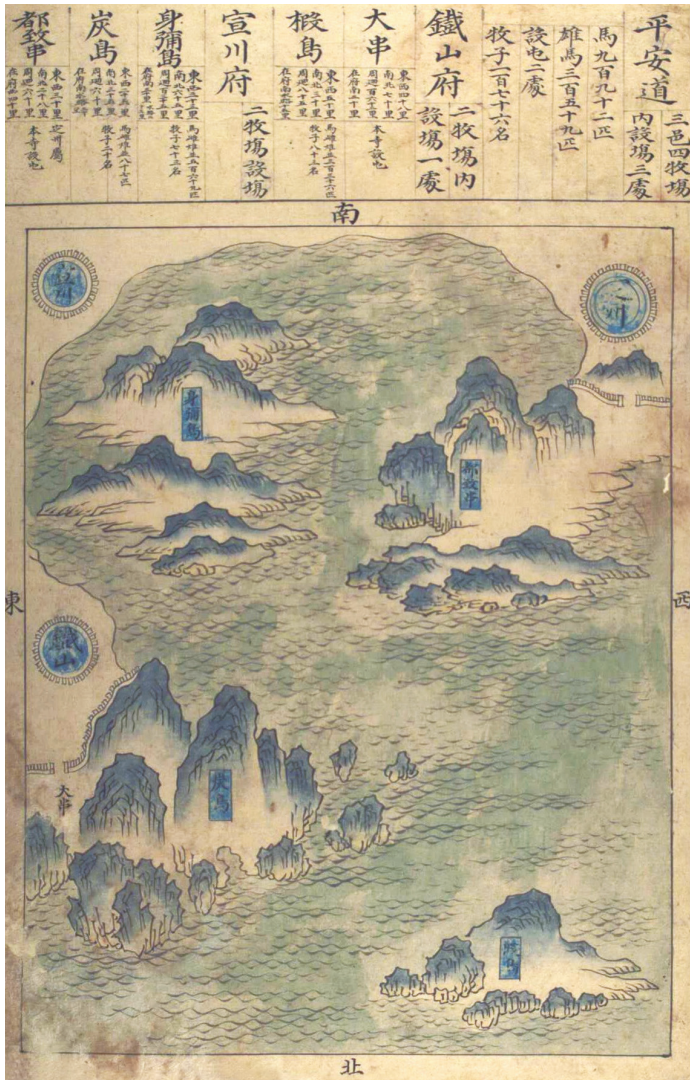
2. 평안도 연해 지역의 대표적인 목장, 가도

조선시대 이전까지 가도는 잘 알려진 섬이 아니었다. 고려 말 가도가 동녕부(東寧府)에 속했다가 동녕부가 철폐되면서 빈 섬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조선시대에는 좋은 말이 나는 철산 소속 목장으로 정평이 났다. 세종 대 이후 가도는 선천의 신미도와 함께 명과 접경한 평안도에서 필요로 하는 말을 제공하는 목장으로 운영되었다.

가도와 신미도의 목장은 선천에 속한 수군진인 선사포진(宣沙浦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여 관리했다. 가도를 비롯하여 목장이 설치된 섬을 수군진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왜구의 출몰과 관련이 있다. 왜구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15세기에는 연근해의 섬을 중간기지 혹은 은거지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에 수군을 활용한 대응책이 모색되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수군진 첨절제사들은 품계가 상당히 높아서 주로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이 기용되었다.

16세기 초부터는 왜구의 출현 빈도가 줄고 또 서·남해로 활동지역이

포커스 I



1678년 사복시(司僕寺)에서 편찬한 <목장지도>의 평안도 부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평안도의 목장을 정주목의 도치곶, 철산부의 대곶·가도, 선천부의 신미도·탄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도치곶과 대곶에는 사복시의 둔전이 개설되었고, 가도·신미도·탄도 등 세 곳의 섬은 목장으로 활용되었다.

“
가도를 비롯한 평안도의 해도는 임진왜란 때 피난처로서 주목받았다.
1592년 10월 유성룡은 강화도와 교동도에 피난한 사람들이
왜적으로부터 무사했던 사례를 들어 ‘해도입보’를 제안했다.
”

위축되자 평안도의 연해 방비체제가 다소 느슨해졌다. 연해 지역에 설치된 진(鎭)·보(堡)를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흐름과 연관된 것이었다. 선사포진 역시 용천의 미곶진(彌串鎭)과 합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인근 해역의 요충지라는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 무렵 명의 요동 한인(漢人)들이 조선과의 접경지대로 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압록강 인근의 하중도(下中島)와 평안도 연해의 해도(海島)를 활동 무대로 삼았다. 조선은 명의 요동도사(遼東都司)에 한인의 유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해안과 변경의 방비를 강화했다. 같은 이유로 16세기 중반 선사포진·미곶진 등지에 성곽을 축조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가도를 비롯한 평안도의 해도는 임진왜란 때 피난처로서 주목받았다. 1592년 10월 유성룡(柳成龍)은 강화도와 교동도에 피난한 사람들이 왜적으로부터 무사했던 사례를 들어 ‘해도입보(海島入保)’를 제안했다. 그 가운데 평안도 각 고을의 인근 섬에 피난민을 들여보내는 한편, 선사포진의 수군을 활용하여 지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가도가 후보지로 거론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비변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어 토지가 비옥한 섬으로 피난민을 들여보내고 둔전을 일구어 자구책을 마련하게 하

자고 했다. 이때 비변사에서 직접 거론된 섬은 선천의 신미도였지만, 인근의 가도 역시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명의 군대가 개입하고 일본군이 남쪽으로 철수하자 해도입보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후 가도는 다시 목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듯하다. 1598년 조선 조정에서 전마(戰馬) 2,000필을 마련하는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양질의 말을 조달할 만한 목장으로 가도가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도가 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목장으로서 주목받았음을 시사한다. 1610년에는 도체찰사 이항복(李恒福)이 철산과 선천 목장의 말 400여 필을 군사에게 지급하여 수백 명의 정예기병을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15세기 가도·신미도의 목장에서 양육하던 말을 합친 수치에 근사하다. 철산과 선천의 목장은 곧 가도와 신미도를 지칭하므로, 두 섬의 기능은 15~16세기 내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 경내의 명군 주둔지, 동강진

가도는 모진(毛鎭)·모영(毛營) 혹은 동강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명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개설한 동강진의 본부가 가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황경원(黃景源)의 『강한집(江漢集)』에 수록된 「동강지(東江志)」의 동강은 가도를 의미했다. 명의 동강진은 왜 조선의 경내에 설치된 것일까.

1621년 3월, 후금이 요동을 점령하고 압록강 인근까지 진출했다. 이로써 조선과 명의 육상교통로가 단절되었다. 이때 요동 지역의 한인이 조선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같은 해 7월, 모문룡이 해로를 통해 압록강으로 들어와 진강아문(鎭江衙門)을 일시적으로 수복한 뒤, 물러나 조선의 용천에 주둔하였다. 조선은 용천을 도호부(都護府)로

煥二人者。近世名臣也。而徒持牽制之議。不輟東江。歲輸銀二十四萬米十三萬六千石。以養鎮民。爲中國肘腋之患。然。王朝常保東江。卒不違。天子之命。其深仁烏可泯也。作東江志。凡二篇。異日館閣如增修本國地志。則東江一鎮始終。亦可以繫鐵山府關防矣。

東江志上

天啓二年。平遼將軍中軍都督府左都督毛文龍。出屯東江。哲皇帝賜尚方劔以鎮之。初。文龍率河東兵三百人。浮海夜襲鎮江城。殺其將佟養正。遂置宣江。漢集。卷五。狀。二一

鐵二府間。招集遼民。遼民悅而歸之者十餘萬。巡撫御史王化貞。奏授文龍總兵官。然文龍殘賊。喜貨無大略。出師輒敗。四年。分兵入諸島。初置屯田。宣川府爲島者六。而身彌最大。身彌者。雲從島也。鐵山府爲島者十。而皮島最大。皮島者。東江鎮也。自文龍屯田以來。十六島耜者相望。虜人惡之。襲文龍於島中。燒其粟。是時。仁廟新卽位。事。明恭謹。乃下教。歲漕清南清北粟各二萬石。以餉文龍。清南漕。從石多。山西北行。凡三百里。上東江。清北漕。從宣沙浦。西南行。凡六十里。下東江。東江委輸自此始。六年。天子

황경원의 <강한집>에 수록된 「동강진」 도입부

동강진이 존속한 시기의 가도를 명의 호칭인 '피도'로 다루고 있으며, 동강은 곧 가도로 설명된다 (한국고전종합DB).

승격시키고 바닷길을 통한 명과의 교통로 확보에 나섰다.

같은 해 12월, 후금군이 모문룡을 잡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와 용천을 습격하였고 모문룡은 조선 내지로 도주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조선 조정은 모문룡에게 가도로 들어갈 것을 권했고 모문룡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명에서는 그를 평료총병관(平遼總兵官)으로 임명하고 동강진을 개설했다. 같은 해, 조선은 동강진 문제를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철산역시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렇게 가도는 새로 마련된 해상교통로의 출발지가 되었다.

“
각자의 정치적 셈법은 복잡했지만, 후금이 ‘공공의 적’이라는
표면적 이유로 조선과 동강진은 공생했다. 하지만 양자 간에는
심각한 갈등 요소도 여럿 존재했다.
”

인조반정(仁祖反正)이 발생한 이후 조선은 ‘친명배금(親明排金)’의 기치를 내걸고 모문룡과의 전심협력을 천명했다. 인조 정권은 모문룡을 통해서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조선의 군사적·재정적 지원에 의지해야 했던 모문룡 역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각자의 정치적 셈법은 복잡했지만, 후금이 ‘공공의 적’이라는 표면적 이유로 조선과 동강진은 공생했다. 하지만 양자 간에는 심각한 갈등 요소도 여럿 존재했다.

먼저 군사·재정적 측면에서 동강진의 효용성이었다. 모문룡은 10만여명에 달하는 인구를 규합했으나 쓸 만한 군사는 소수였다. 또 동강진 소속 장수들은 후금을 빈번하게 도발하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명 조정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려는 과시적 행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동강진에 대한 군사·재정적 지원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다음은 동강진의 인적 구성이었다. 여진인·몽골인이 적지 않았고, 한인도 상당수가 ‘가달(假獮)’이었다. 가달은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한인을 뜻하는데, 변발한 탓에 여진인과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동강진 군사 중 상당수는 조선의 내지로 들어와 거점을 마련하거나 둔전을 일구었기 때문에 조선은 후금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포커스 I

그 밖에 동강진은 조선이 명에 보내는 문서를 검열하는 등 내정 간섭에 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이 군사·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소수의 정예병만 남기고 나머지 동강진 소속의 백성을 산동 일대로 이주 시켜달라고 명 조정에게 직접 건의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모문룡은 조선이 후금·일본과 밀통한다고 고발했고, 조선은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 문제를 해명해야 했다.

동강진 소속 장병의 결식·약탈 및 각종 범죄 행각, 산림 훼손 등 부수적인 폐해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급기야 정묘호란(丁卯胡亂) 이후에는 청천강 이북 지역의 조선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누차 발생하여 양자 간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명의 지원 부족과 조선의 ‘거리두기’로 곤란해진 동강진은 후금과 비밀리에 교섭하기도 했다.

1629년 모문룡이 원숭환(袁崇煥)에게 제거된 이후 동강진은 점차 위축되었다. 1630년 가도 내부에서 유흥치(劉興治)가 주도하여 일으킨 정변을 시작으로 동강진의 지휘부는 여러 번 교체되었다. 그 결과 병자호란이 벌어질 무렵 동강진은 가도에서 연명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결국 1637년 4월 조선과 청의 연합군이 가도를 점령함으로써 동강진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가도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채 방기되었다.

4. 선사포진의 치폐(置廢)와 가도의 변모

동강진이 사라진 뒤에도 명의 수군은 가도 인근 해역에 출몰했다. 이들은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밀무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청에서 이를 의식하자 조선은 명 수군의 접근을 저지했고, 그들이 잠입·은거하지 못하도록 가도를 직접 수색하기도 했다. 병자호란 이후부터 명이 멸망하기

포커스 I

까지 가도는 접근이 금지된 섬이었다.

1648년 평안도에 목장을 재건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거론한 곳은 철산의 가도·대곶, 선천의 신미도, 정주의 도치곶 등이었다. 여러 섬의 목장은 1649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되었고, 1673년경 가도의 목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이 사료에서 확인된다.

이윽고 가도는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1676년 3월, 조선 조정에서는 가도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가도를 조사하려는 청의 동정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영의정 허적(許積)은 다음과 같이 그 의도를 해석했다.

가도는 곧 철산의 땅으로 우리나라의 뱃길은 반드시 이곳을 경유합니다. 옛 상신(相臣) 이완(李滄)은 늘상 가도에 군진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진을 설치할 의사가 있으니 저 나라에서 그 형세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섬에 (청이) 하나의 군진을 설치하게 되면 평안도·황해도를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252책, 숙종 2년 3월 25일

이날 회의에서는 청이 조선을 지킨다는 구실로 가도에 진을 설치할 것이라는 데로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철산의 선사포진을 가도로 옮기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자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해 8월, 평안감사 민종도(閔宗道)는 가도를 조사한 뒤 지도가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로써 선사포진의 이설이 결정되었다.

그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도로 본진을 옮기고 소속 수군도 섬에 예속시킨다.

포커스 I

2. 선사포진의 침철제사가 감목관을 겸한다.
3. 가도는 철산에 속하지만 군사 문제는 선천의 방어사(防禦使)에게 보고한다.
4. 가도 인근의 대산곶(大山串) 둔전도 선사포진에서 관할한다.

그 밖에 섬으로 이주할 민호(民戶)와 노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선사포진의 이설을 추진하면서 가도를 행정적으로는 철산, 군사적으로는 선천 방어영(防禦營)에 소속시키는 것이 골자였으며 목장과 둔전도 본진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1678년에는 유사시 의주·용천·철산의 주민 가운데 미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선사진에 입도(入島)하게 하는 조치도 추가되었다.

조선이 수군진의 이설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도입보책까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조선을 보호한다’는 청의 구실은 ‘삼변(三藩)의 난’과 관련이 있다. 청은 삼변의 세력이 해로를 따라서 조선과 연계하거나 인근 해역에 거점을 마련할 것을 염려했고, 이를 저지할 적소로 가도를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청이 가도에 군사거점을 마련하고자 한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 당시 남인(南人)이 주도하던 조선 조정에는 북벌론(北伐論)이 확산하고 있었다. 청은 이를 감시할 목적에서 가도에 군진을 설치하여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조선의 선사포진 이설은 꽤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이 스스로 삼변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도 제시할 수 있고, 동시에 청의 외압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도에 설치된 선사포진의 생명은 길지 않았다. 1681년 청 사신은 황제가 모문룡의 동강진을 언급하면서 이 섬을 둘러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포커스 I



18세기 <해동지도>의 철산부 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하단에 보이는 가도에는 10여 호의 거주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커스 I

고 말했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등은 그 목적을 의심하면서도 황제의 명령을 거론한 이상 끝내 거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청에서 선사포진의 가도 이설을 자신들에 대한 방비책으로 오인할 경우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타당하게 여긴 숙종은 청 사신이 가도에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선사포진을 철산의 옛터로 도로 옮기라고 명했다.

5년 만에 수군진이 철폐되자 가도는 이전처럼 목장으로 돌아갔다. 다만, 선사포진의 침절제사가 가도의 감목관을 겸하는 규정은 유지되었다. 청에서도 이 문제로 추가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인(西人)으로 교체된 조선 조정 내부의 북벌론이 시들해진 점과 삼변의 난이 종식되어 양국의 외교관계가 안정적 궤도에 올라서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18~19세기 가도는 다양한 생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1783년 평안도 방어사가 올린 장계에는 가도·신미도를 비롯한 섬들의 현황이 부기되었다. 가도에 대한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었다. 철산의 선사포와 가도의 예사포(訥泗浦)는 30리의 수로를 통해 왕래할 수 있다는 점, 섬 안에는 48곳의 샘이 있고 47호의 거주민이 논과 밭을 경작하여 사복시와 선사포진에 세금을 낸다는 점 등이다. 벼·조·콩·팥·목화·보리·밀·메밀 등의 곡물이 경작되고 송어와 민어·조기 등을 대상으로 한 어업도 진행되었다. 이 장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도는 목장 기능도 유지하였다. 19세기에 작성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가도의 목장에 244필의 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19세기 가도는 거주민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조선의 섬으로 정착한 것이다.

“
가도는 조선의 경내에 있지만, 명·청을 오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해양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명의 군진이 장기간 설치되기도 하고,
또 청이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 눈여겨본 섬이기도 하다.
”

5. 맺음말

해양 경계나 영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근대에는 연근해의 섬에 대한 지배력 역시 공고하지 못했다. 이는 변경에 위치한 섬의 소속을 모호하게 했다. 주변국의 인구 유입을 막을 만한 수단이 딱히 없었고, 무력이나 외교적인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철산의 가도는 변경에 속한 섬은 아니었다. 조선은 가도에 목장을 설치하여 일찍부터 활용해 왔고 명의 강진 개설 이후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17세기 전반 조선과 명 사이에 해상교통로가 열리면서 가도는 명의 군사거점이 되었고, 동강진은 양국의 중개지로 기능했다.

17세기 후반 가도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청이 삼변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삼변 세력과 조선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가도를 거점으로 삼겠다는 첩보를 흘렸기 때문이다. 조선은 청의 가도 점거가 실현될 경우 내정 간섭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선사포진을 가도로 옮기는 선제조치로 대응했다. 오래지 않아 청과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선사포진은 다시 철산으로 회귀했지만, 가도는 조선의 섬으로 각인되었다. 18세기 이후 가도는 조선인이 유입되면서 목장과 함께 농업과 어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포커스 I

가도는 조선의 경내에 있지만, 명·청을 오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해양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명의 군진이 장기간 설치되기도 하고, 또 청이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 눈여겨본 섬이기도 하다. 명과 청 모두 가도를 통해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대응하면서 가도는 점차 조선인이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갔다.



장정수(張禎洙, Jang, Jung-s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조선후기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7세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대외관계와 군사사를 공부해왔으며, 최근에는 강역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당대사적 관점에서 조선 왕조를 중심으로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쓰시마의 역사·지리와 한일 관계

이해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맑은 날,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 멀리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섬이 있다. 한국에서 대마도라고 부르는 쓰시마이다. 문헌상에서 쓰시마는 3세기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왜인(倭人)’에 관한 조항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면 나오는 왜인들의 수많은 소국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대마국(對馬國)’이라고 한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섬으로 일찍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한 쓰시마의 지리적 여건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후에도 쓰시마는 고려 말~조선 초에 한반도를 침략한 왜구(倭寇)의 주요 근거지였으며, 평화로운 시대에는 외교적 중개자로 활약했던 중요한 지역 주체였다. 이처럼 한일관계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시마의 역사를 이 글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일찍부터 일본에서는 쓰시마를
서북쪽 변경의 군사적 요충지로 여겼다.
”

1. 대한해협 위 외딴섬

7세기의 일본은 쓰시마를 울령제의 지방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니(國)’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또한 712년에 편찬된 일본의 신화적 기록인 『고사기(古事記)』에는 창조신인 이자나기(イザナギ)와 이자나미(イザナミ)가 낳은 8개 섬 중 하나로 ‘쓰시마(津島)’가 등장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적어도 7~8세기 무렵에 일본은 쓰시마를 자국의 영역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찍부터 일본에서는 쓰시마를 서북쪽 변경의 군사적 요충지로 여겼다.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 663년 백촌강(百村江)전투 이후 쓰시마에 세워진 가네다성(金田城)이다. 백제 멸망 후, 일본의 지원군이 가세한 백제부흥운동군은 663년에 나당연합군과 백촌강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일본은 본국으로 철병한 뒤, 적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쓰시마에서 규슈(九州) 북부와 세토내해(瀬土内海)로 이어지는 해안가에 한반도식 산성을 다수 축조하였다. 현재도 성벽 일부가 남아 있는 가네다성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이 쓰시마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침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통일신라 말기에 지방행정의 이완 속에서 출현한 신라 해적(新羅寇)이나 고려시대의 여진족 해적인 도이(刀伊)의 일본 침략(1019)은 모두 쓰시마가 첫 피

포커스 I



가네다성 유적(필자 촬영)

해지역이 되었다.

게다가 1266년과 1271년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일본 침략 때에도 쓰시마는 적의 첫 상륙지이자 주요 격전지였다. 특히 1266년의 침략은 쓰시마 서남쪽 해안에 상륙한 여몽연합군과 현지 무사들의 격돌 속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어진 적의 약탈로 쓰시마 전역이 초토화되는 등 섬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처를 남겼다. 쓰시마를 비롯한 규슈 북부 지역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이나 투정을 달랠 때 쓰는 “무쿠리(몽골), 고쿠리(고구려) 도깨비가 또 온다”라는 말은 여몽연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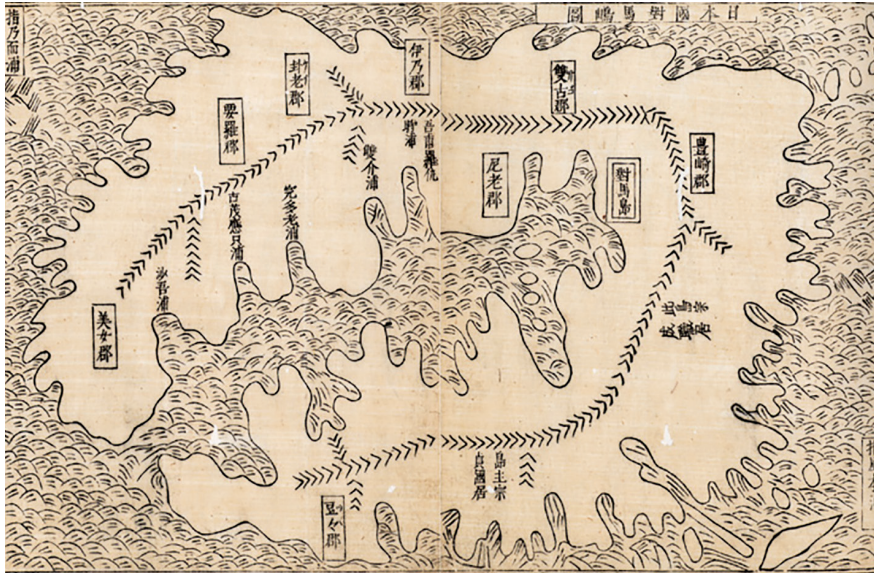
“
신숙주는 쓰시마에 관하여 “사방이 모두 돌산이라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한다.…”라고 하였다.
”

의 침략으로 형성된 대외적 경계의식이 민속 어휘로 전승된 사례이다. 더욱이 과거 바다를 건너와 삼한(三韓)을 정벌하고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전설상의 허구적 인물인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전승지가 쓰시마에 유달리 많은 이유도, 이러한 침략의 기억에 대한 반작용적인 현상이었다.

2. 사방이 모두 돌산인 섬

조선의 관료로서 15세기에 사신으로 일본을 왕래했던 신숙주(申叔舟)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지어 일본의 정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 책에서 신숙주는 쓰시마에 관하여 “사방이 모두 돌산이라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한다. 소씨(宗氏)가 대대로 도주(島主) 노릇을 한다”라고 하였다. 섬 안에 농경지가 부족하여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했던 쓰시마의 경제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서술이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행정이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쓰시마 사람들은 생계의 위기를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2~13세기에 쓰시마는 고려에 해마다 두 척의 진봉선(進奉船)을 파견하여 특산품을 진상하고 답례품을



『해동제국기』의 쓰시마 지도

받는 형식으로 무역을 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와 쓰시마 사이의 조공무역은 몽골의 일본 침략을 계기로 끊어지게 된다. 더욱이 일본이 남북 조시대(1336~1392)의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중앙정권의 지방 장악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따라서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게 된 쓰시마 및 규슈 북부의 섬 지역 사람들은 해적이 되어 약탈을 시작하였다. 14~16세기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악명을 떨친 왜구의 등장이었다.

왜구의 침략은 특히 한반도의 중남부 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 조정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단속을 요청함과 동시에, 왜구의 소굴로 간주한 쓰시마를 세 차례에 걸쳐 정벌하였다. 이후 조선은 쓰시마의 왜인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폈다. 이를 위하여 부산

포커스 I

인근의 세 포구에 왜관(倭館)을 건립하고 무역의 권리를 제공하였으며, 인근 지역에 왜인들의 거주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할 및 왜구의 단속을 쓰시마도주에게 맡겼다. 이러한 조선과 쓰시마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조공 형태로, 시혜를 베푸는 조선 측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포(三浦)의 왜인들과 치안과 조세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으며, 조선 측 관인들의 폭압과 차별로 인한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점차 삼포의 왜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갔다.

결국 조선의 처우에 불만이 쌓인 삼포의 왜인들은 쓰시마도주의 묵인 하에 1510년에 일제히 폭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이른바 삼포왜란(三浦倭亂)으로, 왜란을 진압한 후 조선은 삼포를 폐쇄하고 왜인들의 무역권을 회수하였다. 이후 쓰시마도주의 끈질긴 요청으로 조선은 무역을 다시 허락하였으나, 징벌적 조치로 이전보다 축소된 규모만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왜인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왜구의 출몰은 계속되었다. 특히 1555년의 을묘왜변(乙卯倭變)은 70여 척의 선박과 수천 명에 달하는 침략이었기에 경각심을 느낀 조선 조정이 변경의 일을 전담하는 비변사(備邊司)를 상설기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개자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는 “쓰시마는 해동(海東) 여러 섬의 요충에 위치하여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각지의 추장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므로, 모두 도주의 문인(文引)을 받은 뒤에 오게 하였다. 도주 이하가 각각 보내는 사선(使船)은 해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데, 쓰시마는 우리나라와

“
『해동제국기』는 “쓰시마는 해동 여러 섬의 요충에 위치하여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각지의 추장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므로,
모두 도주의 문인을 받은 뒤에 오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

가장 가깝지만 매우 가난하므로 해마다 쌀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라고 하였다. 쓰시마를 매개로 한 조선의 대일외교 관리체제 및 왜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회유책을 설명하는 서술이다.

조선 전기에는 쓰시마 외에도 일본의 중앙정권이었던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및 실질적으로 왜구를 단속할 역량을 지닌 현지의 지역 영주들과 다원적인 외교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항해 오는 일본인들이 증가하자 조선은 구리로 만든 도장인 도서(圖書)를 외교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여 외교문서에 찍도록 하고, 양국 간의 해상 통로였던 쓰시마에 일차적인 도항 자격 심사를 맡겼다. 앞에 인용한 『해동제국기』 기사 속의 ‘문인’이 바로 쓰시마도주가 일본인에게 발급한 도항 허가증으로, 이 권한은 쓰시마를 조일외교의 중개자로 기능하게끔 하였다.

그런데 15세기 중엽에 일본이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도항 주체 중에 세력이 소멸하거나 혹은 여건상 외교와 무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생겨났다. 쓰시마는 이들의 권리를 위탁받는 형태로 점차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해 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쓰시마는 도서와 문인, 그리고 외교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조선에 무역선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위사(僞使)의 도해는 조선 측의 외교적 골칫거리였으나, 왜구의 억제라는 본래의 취지상 묵인 혹은 경고 차원에 그친 경

포커스 I

우도 적지 않았다.

쓰시마의 외교 공작은 전국시대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에 항복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쓰시마는 일본에서 통일을 축하하는 사절의 파견을 원한다고 중간에서 요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조선이 명을 정벌하는 데 앞장서라고 하였던 히데요시의 요구를 조공을 위하여 길을 빌려 달라는 요청으로 바꾸어 전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두 조선과의 무역 단절을 우려하여 전쟁을 피하기 위한 쓰시마의 생존전략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이 한창일 때에도 쓰시마는 조선과 은밀히 독자적인 교섭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 일본의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지시하에 조선과 강화 교섭을 수행하는 중에도 쓰시마는 쌍방의 외교문서를 날조하여 상황을 수습하였다. 결국 조선은 1607년에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전쟁으로 단절된 무역의 복구를 위한 쓰시마의 비리가 결과적으로 조일 양국의 관계 회복을 이끈 셈이다. 쓰시마가 조일 양국 사이에서 외교문서를 위조하던 관행은 1635년에 에도막부(江戸幕府)에 폭로됨에 따라 종언을 고하게 된다.

이처럼 에도시대의 쓰시마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외교를 중재하는 역할을 계속 전담하였다. 쇼군(將軍)의 취임 등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마다 일본은 조선에 통신사(通信使)의 파견을 요청하였는데, 사전 교섭부터 사신의 인솔 등을 쓰시마가 맡았다. 또한 에도시대에 총 12회 파견된 통신사 중에서 마지막이었던 1811년의 통신사는 에도가 아니라 쓰시마를 최종 목적지로 한 사절이었다. 이를 역지빙례(易地聘禮)라고 부른다. 에

포커스 I



역지빙례에 일본 측 사절단으로 참석했던 구사바 하이센(草葉佩川)이 쓴 『쓰시마일기(津島日記)』에 수록된 통신사 행렬도의 일부 [일본 사가대학(佐賀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도막부와 조선 모두 재정난과 민력(民力) 고갈에 시달리는 가운데 사신의 접대를 간소화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결과였다.

조일무역 또한 1609년에 체결된 기유약조(己酉約條)를 계기로 복구되어 쓰시마가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다. 쓰시마는 주로 일본산 은을 부산의 왜관으로 가져와 조선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생사(生絲)와 비단, 그리고 조선산 인삼을 구매해서 일본 국내시장에 파는 중계무역을 실시하

였다. 17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한 조일무역은 쓰시마에 부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17세기 말에 막부가 은화의 은 함유량을 낮추는 개주(改鑄)정책을 단행한 결과, 조선 무역은 타격을 입게 된다. 쓰시마는 일본 국내에서 화폐로 통용되던 은화를 무역상품으로 조선에 판매해 왔기 때문에 은화의 품위 저하는 곧 일본산 무역품의 가치 하락 및 조선산 무역품의 가격 향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18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쓰시마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4. 쓰시마의 아이덴티티와 주장

이처럼 농업경제하에 농민이 납부하는 조세를 재정적 기반으로 삼았던 일본의 다른 영주들과는 달리, 쓰시마는 상당 부분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특수한 길을 걸었다. 즉 조선 후기의 쓰시마는 정치적으로는 일본 측 에도막부와와 관계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하였던 셈이다. 따라서 조선 무역의 부진은 쓰시마에 급작스러운 재정난을 불러왔다. 이러한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시마는 막부에 무역 특혜 및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과거 쓰시마는 조선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왜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조선의 ‘번병(藩屏)’을 자처하였다. 번병이란 울타리에서 유래한 말로, 왕실이나 나라를 수호하는 대신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주변국 혹은 민족을 가리킨다. 즉 조선을 중심으로 한 소중화(小中華) 질서에 예속되었음을 쓰시마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에도시대에 접어들어 막부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쓰시마는 조

포커스 I



1700년에 완성된 쓰시마 지도 <겐로쿠 쓰시마 구니에즈(元祿對馬國繪圖)>[일본 쓰시마박물관(對馬博物館) 소장]

“
에도시대에 접어들어 막부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
쓰시마에서는 조선이 아닌 일본의 ‘번병’이라는 자기 인식이 형성되었다.
”

선에 대한 과거의 외교의례를 굴욕적인 폐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쓰시마에서는 조선이 아닌 일본의 ‘번병’이라는 자기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자기 인식에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유래가 존재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 내에서 쓰시마는 대륙 방면의 최전선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외세의 침략을 겪었던 곳이었다. 따라서 쓰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조 대대로 일본 변경의 요충지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는 자기 인식이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쓰시마의 자기 인식은 막부에 대한 경제적 청원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일 국교 회복을 계기로 막부는 쓰시마에 조선과의 외교 및 변경을 수호하는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조선과의 무역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변경에 위기가 찾아오면 무역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항시적인 재원으로서는 막부가 쓰시마에 지원금 혹은 새로운 영지를 하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17세기 후반에 청(淸)이 중국을 통일한 뒤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는 가운데, 일본은 대륙의 침략을 막아내는 방파제나 다름없는 조선과 돈독한 외교를 계속하여 대외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주장은 당시 막부 내에서 조선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기 위하여 창출해 낸 쓰시마의 새로운 논리였다.

포커스 I

그러나 에도시대 후기에 쓰시마는 막부에 대한 재정 원조 청원 및 역지 빙례의 추진 과정에서 영지 내의 여론이 사분오열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19세기 중엽에는 반(反)막부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슈번(長州藩)과의 인척관계가 쓰시마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쓰시마 내에서도 친막부와 반막부의 정치적 노선이 대립하는 가운데, 에도시대 말기의 잦은 정치적 국면 전환 속에서 서로 숙청을 거듭하다 공멸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러한 가운데 1861년에는 부동항(不凍港)을 찾는 러시아 함대가 쓰시마에 상륙하여 조차지를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져 쓰시마의 지리적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쓰시마는 내외외환 속에서 근대를 맞이하였다.

5. 근대 이후의 쓰시마

1868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에도막부의 정치적 실권이 천황에게 옮겨온 뒤에도, 쓰시마의 외교적 역할은 곧바로 회수되지 않았다. 메이지정부 또한 처음에는 조선과의 외교를 쓰시마에 위임하여, 왕정복고(王政復古)의 소식을 알리는 외교문서를 도주 명의로 작성해 조선에 발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황(皇)’과 ‘칙(勅)’ 등 천황을 지칭하는 일본 측 외교문서의 표현을 문제 삼아 조선이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양국 외교는 일시적으로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느낀 일본의 외무성이 쓰시마로부터 외교권을 회수하고 왜관의 관할권 또한 접수하면서 쓰시마의 외교적 역할은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러나 왜관이 국가에 귀속되고, 나아가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쓰시마 사람들은 양국 간의 외교와 무역은 물론 개항장 부산의

포커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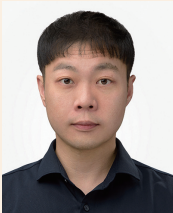
와타즈미신사의 3중 도리이(鳥居)

일본인 사회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이어갔다. 전통적으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중개해 왔던 섬 사람들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가 시작된 뒤, 1931년에 내선일체(內鮮一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쓰시마도주 가문의 당주인 소 다케유키(宗武志)와 대한 제국 황실의 후예인 덕혜옹주(德惠翁主)의 비극으로 끝난 정략결혼은 조일 관계 속에서 쓰시마가 지닌 역사적 위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과

“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쓰시마 사람들은
양국 간의 외교와 무역은 물론 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사회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이어갔다.
”

함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로 인하여 쓰시마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쓰시마의 와타즈미신사(和多都美神社)와 하치만신사(八幡神社)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한 일로 소란이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인 섬 사람들의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일부 관광객의 자세 또한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이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이해와 함께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와 관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해진(李咳鎭, Lee, Hae-jin)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일본 교토대학 문학연구과에서 역사문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부 전공은 일본 근세사(근세 한일관계사)이다. 에도 시대(조선 후기)의 조선과 일본 관계를 중심으로 중개자로서의 쓰시마, 그리고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시대상 등을 연구 중이다.

오кина와에서 마주한 고려 삼별초의 역사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독도체험관장

1. 머리말

2018년 9월, 필자는 오кина와(沖繩)를 방문했다. 오кина와군도의 작은 섬인 미야코지마(宮古島)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묻는다”는 주제로 개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출국하기에 앞서 오кина와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과정에서 2007년 ‘탐라와 유구왕국’을 주제로 오кина와 해양유물 특별전을 개최한 국립제주박물관의 삼별초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кина와 출토품인 수막새가 당시 제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13세기 고려시대 기와와 매우 흡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요컨대 제주박물관이 소장 중인 고려 기와는 삼별초(三別抄)의 근거지였던 전남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점에

“
제주박물관이 소장 중인 고려 기와는 삼별초의 근거지였던
전남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점에서, 오키나와의 우라소에성에서
출토한 ‘계유년고려와장조’ 기와에 명기된 ‘계유년’이 1273년일 가능성 및
삼별초와 오키나와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

서, 오키나와의 우라소에성(浦添城)에서 출토한 ‘계유년고려와장조(癸酉年高麗瓦匠造)’ 기와에 명기된 ‘계유년’이 1273년일 가능성 및 삼별초와 오키나와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세기 이전 역사 속 동아시아의 섬으로서 오키나와가 갖는 삼별초를 매개로 한 고려와의 교류사에 주목하고, 오키나와 고대 역사의 정립 과정에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오키나와 출토 ‘계유년고려와장조’ 기와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고려계 기와는 9종류 32형식에 이르는 다양한 양태로 알려져 있는데, ‘계유년고려와장조’ 기와는 ‘고려와장’이라는 제작자의 신원과 ‘계유년’이라는 제작 시기를 밝힌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계유년’이라는 시기와 관련하여 1153년, 1273년, 1333년, 1393년 등의 학설이 제시되었는데, 고려 원종 14년(1273)과 조선 태조 2년(1393)으로 압축되고 있다.

포커스 I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13세기 고려시대 기와(왼쪽)와 오키나와 우라소에성에서 출토된 고려계 기와(오른쪽)(국립제주박물관)

연꽃 앞의 수만 조금 다를 뿐 기본 열개와 무늬가 거의 흡사하여 삼별초 진출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1) 1273년 계유년설

고려 기와가 다수 출토된 오키나와 우라소에성(浦添城)은 슈리성(首里城) 이전 중산의 왕성이었던 곳이다. 성터는 태평양전쟁 때 미군의 집중 포격으로 대파되어 거의 사라졌으나, 성 북측 낭떠러지 아래 왕묘인 ‘요도레(ようどれ)’에 왕성의 형적이 일부 남아 있고, 영조왕(재위 1260~1299)과 상령왕(1589~1620)의 능묘가 있다. 요도레 앞에 있는 유적 가운데 13세기 함순(송대 연호) 연간(1265~1274)에 조성되었다는 오키나와 최초의 불사인 극락사(極樂寺) 터가 있다. 이 절은 유구(琉球)에 표착한 선감(禪鑑)이라는 승려가 건립한 것이라 전한다. 즉, 14세기 이후 유구왕국의 중심이 된 슈리성에 앞서, 그 전 단계에 우라소에성은 유구 고대왕국의 정치적 중심이었고 정전의 건립을 비롯한 이 도성 건설에 고려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입증되고 있다. 그 시기는 ‘계유년’ 기와에 의하여 1273년설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2) 1393년 계유년설

오키나와 기와의 1393년설과 관련하여, 1392년 조선 왕조 개창은 일부 정치엘리트에 국한된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왕조 개창에 의한 기술자 집단의 유민 발생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정부 차원의 기술인력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의 연호 대신 ‘계유’라는 간지만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 1393년설에서는 오키나와 파상궁(波上宮)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종도 이들에 의하여 유구왕국에 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역시 고려 말 조선 건국기의 역사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반면 오키나와 기와를 1273년 삼별초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120년 전 비정부 차원의 교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에 교류가 없었다”는 『고려사』 기록 과도 상충하지 않는다.

3. 유구왕국과 삼별초

(1) 유구왕국의 역사

유구왕국은 1429~1879년까지 일본 영토의 최남단인 오키나와현에 존재했던 독립왕국이다. 160여 개의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유구제도(琉球諸島)라고 하는데, 가장 큰 섬인 유구섬을 중심으로 유구왕국이 존재했다. 유구섬은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 규모이고, 제주도 남단에서 70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12세기부터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키나와섬 각 지역에 아지(按司)라 불리는 호족을 중심으로 남산(南山)·북산(北山)·중산(中山)의 세 개 왕조가 생겼으며, 1429년 중산왕이 두 왕조를 통합하여 최초로 단일한

포커스 I



삼산시대 유구왕국의 영역과 우라소에성의 위치

통일국가를 수립했다. 1430년 명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고, 명의 선덕제는 쇼(尚)라는 왕성(王姓)과 함께 유구(琉球)라는 국호를 내렸다. 남쪽의 슈리(首里)에 수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오키나와현의 주도(州都)인 나하(Naha, 那覇)시의 일부가 되었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는 중산왕 상파지(尙巴志)에 대해, 상은 성이고 호는 파지이며, 이름은 억재(億載)인데, 국

포커스 I

왕이 거주하는 곳이 중산이므로 중산왕이라 칭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유구왕국은 1609년 일본 사쓰마번(薩摩藩)의 침공으로 중개무역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1879년 일본 제국에 병합되면서 현재의 오키나와현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지배했으나,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2) 삼별초의 대몽항쟁

삼별초는 본래 고려시대 최씨무신정권의 사병조직으로, 1219년(고종 6년) 최우(崔瑀)가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에서 비롯되었다. 야별초는 도성을 순찰하고 도적을 잡는 등 민간의 치안까지 담당하면서 좌별초(左別抄)와 우별초(右別抄)로 확대, 재편되었다. 또한 1231년(고종 18)부터 몽골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던 고려군 중에 탈출한 병사들이 중심이 되어 몽골에 대항하는 신의군(神義軍)으로 결성되었다. 이로써 삼별초는 좌별초·우별초·신의군을 통합한 총칭이 되었다. 이후 1232년(고종 19) 고려는 몽골군을 피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였고, 삼별초는 약 30년간 몽골에 맞서 특수정예군대로 대몽항쟁을 벌였다.

1258년(고종 45) 최씨무신정권이 몰락하자 몽골에서 귀국한 고려의 태자가 1259년 원종으로 즉위, 몽골 세력의 지원하에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몽골의 압력 끝에 1270년(원종 11) 5월 개경으로 환도하며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저항한 삼별초는 6월 1일 배중손(裴仲孫)을 주축으로 항쟁을 일으키고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왕으로 추대했다. 나아가 반몽 세력을 규합해 6월 3일 강화도에서 전라도 진도로 남하한 뒤, 용장산성에 터를 잡고 서남 해안 일대를 거점으로 몽골과 고려 조정에 대항했다.

결국 1271년(원종 12) 5월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함락하자 온왕이 죽고

“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계유년 고려 기와’는 1271년 삼별초의 잔여 세력이
진도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그 잔여 세력의 일부가 제주도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분산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배중손은 전사했다. 삼별초는 장군 김통정(金通精)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거점을 옮겨 투쟁을 계속했으나, 1273년(원종 14) 6월 여몽연합군에게 패하여 섬멸되었다. 이것이 기존의 기록이다.

4. 삼별초의 오키나와 진출 가능성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계유년 고려 기와’는 1271년 삼별초의 잔여 세력이 진도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그 잔여 세력의 일부가 제주도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분산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1273년 제주도에서는, 이미 진도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섬이 함락될 경우 진도에 비해 많은 수의 도외(島外) 및 타국으로의 분산을 불가피한 대책으로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주도에서 탈주한 삼별초 잔여세력은 다시 고려 남서 연안의 도서 혹은 본토지역으로 회귀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본 열도 및 오키나와 등지로 필사적으로 탈주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삼별초 잔여 세력의 해외 분산을 상정한다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항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표류하여 일본 열도 혹은 오키나와에 표착한 여러 경우를 통해 한반도 남

포커스 I



삼별초의 오키나와 진출 추정도

부 해상에서 타국으로의 분산이 13세기에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1700년 전후 조선과 일본 간의 표류민 송환 사례를 검토하면 우선 일본으로부터의 조선 표류민 송환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1687~1696년까지 10년간 19회, 다음 10년간 28회, 다음 10년간 29회, 1716~1726년까지 27회에 걸쳐 일본은 조선 표류민을 송환하였다. 같은 기간 조선의 일본 표류민 송환은 4회, 0회, 6회, 7회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조선 후기인 1599~1867년까지

포커스 I

조선인의 일본 열도 표착사건은 1,020건, 표류민의 수는 1만 37명이라는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일본 열도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분석으로 볼 때, 진도 혹은 제주도에서의 삼별초 세력은 섬이 함락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진도에서의 1만여 명에 비하여 제주도에서 1,300명으로 포로 수가 감소한 점을 통해 삼별초의 일부가 규슈(九州) 혹은 오키나와 등지로 이동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가능한 일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맺음말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고려 기와의 시간적 배경인 편년을 중심으로 기와에 명기된 ‘계유년’이 1273년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 글에서의 편년 논의는 주로 고려의 역사적 맥락과 기와 자료에 대한 비교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구 역사의 맥락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고고학적 자료의 종합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글에서 논의한 기와의 편년 설정에 따라 유구의 역사 전개와 중세 동아시아 교류의 역사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고려 기와에 관한 논의에서 연대 문제는 중요하다 할 것이다.

향후 오키나와에서 고려계 문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기와에 한정되지 않고, 도자기, 성채(城砦), 불교 등으로 주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의 토기 생산에 고려 토기의 기술적 영향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구 최초로 영조왕 연간에 조성된 우라소에성 요도레의 사원인 극락사 창건에 간여한 승려 선감이 고려의 승려였을 가능성도 제기

“
향후 오키나와에서 고려계 문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기와의 한정되지 않고, 도자기, 성채, 불교 등으로
주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되었다. 특히 유구왕국의 대표적 유적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석축성채가 등장하는 13세기라는 시점은 오키나와 고려 기와의 1273년 계유년설과 접맥하여 주목하게 된다. 성채의 출현은 외부와 연관을 갖지 않은 오키나와에서의 자발적 발전이나 일본 열도로부터 기원했음을 찾을 수 없어 고려 성곽문화와의 연관성을 검토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키나와 유구왕국의 건국 기초를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삼별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고려사 연구의 권위자인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제기하는 “전쟁사 혹은 민족항쟁사의 차원에서 나아가 중세 동아시아 교류의 국제적인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환(都時煥, Doh, See-hwa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독도체험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을사늑약과 강제병합 등 한국의 주권문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 중심 인권문제,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한국의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데지마로 본 일본과 네덜란드 관계

신동규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쇄국·해금’과 서양 관계의 네덜란드 단일화

나가사키(長崎)에 위치한 인공섬 데지마(出島, 그림 1)는 에도시대(江戶時代) 네덜란드 상관(商館)의 전용공간으로 서양문명과 과학기술 유입의 중심지이며, 18세기 이후 ‘난학(蘭學)’의 발상지로서 일본 근대화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이 네덜란드로 서양 관계를 한정했던 것은 아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스페인·포르투갈·영국 등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활발했다. 특히, 1543년 포르투갈인이 규슈 남부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표착한 사건은 일본과 서유럽 관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습득한 조총제작법과 대량생산은 이른바 ‘약육강식·하극상’의 시대라고 불리는 혼란한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통일의 시대로

포커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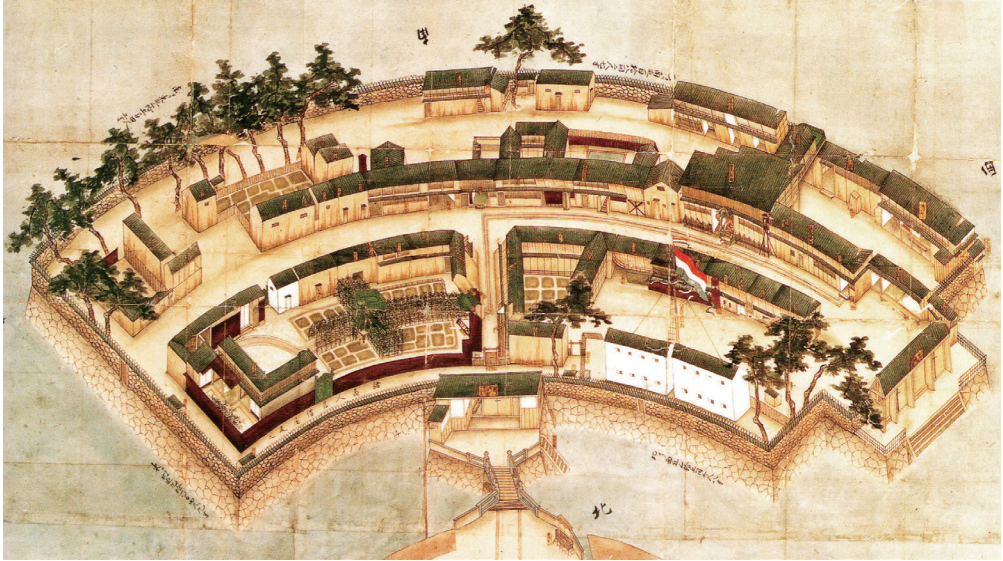


그림 1 나가사키 네덜란드 상관¹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을 끌어냈다.

이렇듯 일본과 서유럽 관계의 시작이 선진적인 과학기술문명과 세계 정보의 습득이라는 측면, 나아가 통일정권을 창출하는 데에는 매우 유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일본의 위정자들은 서양문명과 함께 들어온 그리스도교를 일본의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침략적 성격을 가진 ‘사교(邪敎)’ 집단으로 인식했다. 물론 노부나가는 불교세력의 약화와 대외무역을 위해 선교사들을 우대하기도 했지만, 이후의 히데요시는 서양세력에

1 荒野泰典 監修, 『鎖國の研究』, 2004, ポプラ社, 15쪽.

“
에도시대 초기까지 왕성했던 서양과의 교류가 ‘쇄국·해금’ 정책의
과정 중에 네덜란드와의 단일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

대한 위기의식에서 1587년에는 바테렌(선교사·신부) 추방령, 1596년에 금교령을 내림과 동시에 1597년 2월에는 교토(京都)에서 활약하고 있던 가톨릭 신자 26명을 처형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에도시대에 들어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그리스도교 금교령(1612, 1614)까지 실시하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교를 ‘사교’로 규정하여 금지함과 동시에 막부가 대외무역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른바 ‘쇄국(鎖國)’ 또는 ‘해금(海禁)’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이후 근세 일본 국제관계의 바탕을 이룬다.

물론, 에도막부 초기 단계에서 서양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었다. 1637년 10월 25일부터 1638년 2월 28일까지 그리스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에서 봉기세력 약 3만 7,000명을 모두 전멸시키고, 이를 계기로 1639년 포르투갈과 단교함으로써 서양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한 것이다. 유일하게 네덜란드와의 관계만은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통해 서구 문물의 도입과 세계 정보 유입의 창구로서 막부 말까지 유지하게 된다. 에도시대 초기까지 왕성했던 서양과의 교류가 ‘쇄국·해금’ 정책의 과정 중에 네덜란드와의 단일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그림 2 히라도 네덜란드 상관²

2. 동인도연합회사(VOC) 설립과 일본 진출

그렇다면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이후 ‘일란 관계’로 약칭)는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1600년 3월 16일 네덜란드 상선 리흐테호(De Liefde)의 분고(豊後) 표착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인뿐만 아니라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고문을 담당했던 영

2 平戸市日蘭交流4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會 編, 2000, 『平戸オランダ商館展』, 同委員會, 37쪽.

포커스 I

국인 윌리엄 애덤스(William Adams)³도 승선하고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1600년에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1602년에 국가 주도하에 통합된 회사, 즉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연합회사(Vereenigh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VOC’로 약칭)를 창립하여 동양으로의 무역 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대외무역 독점권을 부여받아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군대 편성, 관리 임명 등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⁴ 이른바 정치·경제·군사권을 가진 권력집단이 되었다. 한 마디로 네덜란드가 VOC이며, VOC가 네덜란드인 일종의 회사 국가였다.

이러한 상황에 리흐데호의 표착사건은 VOC에게 일본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결국 포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야스로부터 일종의 무역허가증인 주인장(朱印狀)을 받아 1609년 일본의 히라도(半戶)에 무역상관을 개설한다(그림 2). 당시 에도막부는 초기부터 남만(南蠻)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특히 포교활동에 노력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가톨릭 국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동시에 포교에 거의 무관심하였던 네덜란드와 영국은 우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뒤를 이어 1613년에는 영국도 상관을 설치하면서 히라도는 에도시대 초기 서양문명을 받아들이는 외교창구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간다.

3 윌리엄 애덤스는 1600년 일본에 표착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중용되어 귀화했고, 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80톤, 120톤급의 서양선박을 건조하기도 했다. 후에 미우라 안진(三浦按針)이라는 일본식 이름과 함께 사가미 노쿠니(相模國)의 일부를 영지로 받아 서양인 최초로 사무라이가 되었다.

4 永積昭, 1971, 『オランダ東インド會社』, 近藤出版社, 29-52쪽.

“
막부는 그리스도교 금제를 위해 포르투갈을 감시할 목적으로 나가사키에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 데지마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어 히라도를 대신해
이곳 데지마가 새로운 외교·무역창구로서 부상하게 된다.
”

3. 나가사키 앞바다에 건축된 인공섬 데지마

그런데 영국의 히라도 상관은 1623년 ‘암보이나(Amboyna)사건’⁵으로 점차 네덜란드와의 일본무역 경쟁에서 밀려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중국무역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1623년 12월 23일 상관을 폐쇄하고 만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 부상(富商)들과의 갈등도 하나의 원인으로 존재하지만,⁶ 어찌 되었든 영국의 일본무역은 완전한 실패로 끝난다. 이후 1634년부터 막부는 그리스도교 금제(禁制)를 위해 포르투갈을 감시할 목적으로 나가사키에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 데지마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어 히라도를 대신해 이곳 데지마가 새로운 외교·무역창구로서 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 5 말루쿠제도의 암보이나섬에 있는 영국 동인도회사 상관을 네덜란드가 습격하여 영국 상관원 전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네덜란드가 이 섬을 장악함으로써 영국의 향료무역은 좌절되었고, 이후 영국이 인도무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6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1979, 『イギリス商館長日記』(1620. 12. 13),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포커스 I



그림 3 에도참부 행렬⁷

그즈음 1637년 10월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막부는 1639년에 포르투갈과 단교한 후,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1640년에 히라도 상관의 건물 지붕 장식판에 서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상관 건물의 파괴를 명한다. 결국 히라도 상관은 폐쇄되었고, 1641년 6월 상관을 데지마로 이전하면서 막부 말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 선박의 일본 입항은 나가사키, 상관원의 일상 업무와 거류지는 데지마로 한정되었다.

그렇다면 데지마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규모는 어떠했을까. 데지마

⁷ 筑摩書房 編, 1976, 『長崎·横浜-江戸時代圖誌 25』, 筑摩書房, 圖 86.

포커스 I

는 나가사키의 상인 25명이 막부의 지시를 받아 1636년에 완공했는데, 대문·다리·석벽 등의 축조 비용은 막부가 맡았고, 그 외 경비는 나가사키의 마치도시요리(町年寄)와 이토와쓰도시요리(糸割符年寄) 등 초닌(町人)이 출자했다. 애초에는 ‘쓰키시마(築島)’라고 불렸는데, 남쪽 바다를 향해 부채 모양으로 축조한 인공섬이었으며, 남쪽은 약 118칸(間, 215m), 북쪽은 96칸(175m), 동쪽 45칸(64m), 서쪽 36칸(66m)으로 총면적은 약 4,500평(15,000m²)에 이르렀다. 그 안의 건물은 전부 목조건축이었는데, 이것은 석조건축이었던 히라도 상관의 요새화를 우려하여 파괴를 지시했던 막부의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했을 당시 기록을 보면 애초에는 주거용 7동(棟)과 작은 창고 9동이 상관의 전용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4. 데지마에서의 ‘합법적 통제’와 ‘합법적 감옥’ 상태

데지마는 북쪽에 출입문과 함께 데지마바시(出島橋, 그림 1의 중앙 하단 부)라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나가사키 시내로 연결되었다. 이는 데지마에서 유일한 육지로의 출구로, 네덜란드인은 1년에 1회(1790년부터는 4년에 1회) 쇼군을 알현하기 위한 ‘에도참부(江戸參府, 그림 3)’ 때에만 이 다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⁹ 일본인 역시 역인(役人)·상인·유녀(遊女)들만 이 다리를 건너 데지마 출입이 허용되었고,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의 관리

8 永續洋子 譯, 1970, 『平戸オランダ商館日記』(1641. 6. 10), 岩波書店.

9 1820년대 중반 데지마에 체재했던 독일인 지볼트(Philipp F. von Siebold)는 의사 겸 학자로서 일본인과도 신뢰가 두터워 데지마 밖으로 외출할 수 있었기에 일부 예외는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그림 4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의 하역 모습¹⁰

오른쪽의 화물을 내리는 곳과 상관 안쪽의 모습을 보면 많은 네덜란드 상관원과 일본인 역인·노동자·유녀(遊女)를 볼 수 있다.

하에 그 이외의 일반인은 모두 엄하게 통행을 금지하였다.

통상적으로 데지마에 상주하는 네덜란드인은 상관장 1명을 비롯해 부상관장 1명, 서기 1~3명, 창고장 1명, 상관장의 보조원 수 명, 의사·목수·조리사·말레이하인 등 15명 내외였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일

¹⁰ 神戸市立博物館 編, 1998, 『日蘭交流のかけ橋』, 神戸市立博物館, 34-35쪽.

“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통제’였으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일종의 ‘합법적인 감옥’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

상적인 무역업무가 행해졌기에 일본인으로 데지마의 책임자인 데지마 오토나(出島乙名),¹¹ 네덜란드어 통번역을 담당한 다수의 일본인 통사(通詞), 고용인, 기록 담당, 심부름꾼, 불조심 당번, 선박 관리인, 문지기, 물품 매수인, 급사, 정원사 등 100여 명의 일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Batavia) 상관을 출발해 타이완해협을 거쳐 7~8월경에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네덜란드 선박¹²이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네덜란드인과 관계되는 서유럽인, 그리고 VOC에 고용된 말레이인들을 포함한 하급 외국인들이 데지마에 상륙하여 북적거리기도 했다(그림 4).

이렇듯 당시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최대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진 데지마였지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인은 외부와 통제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막부가 그리스도교 금제와 일본인의 사사로운 대외 교류를 금지했기 때문이며, 데지마의 출입문인 데지마바시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악행·밀무역 등에 대한 고발 권고와 고발자에 대한 상금 수여를 기재한 규정을 비롯해 여성·수도승·승려·걸인 등의 출입과 네덜

11 데지마에서 무역업무를 총괄하며, 데지마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일본인들의 감독과 지휘를 책임지는 동시에 데지마 출입허가증을 발급하는 일을 담당했다.

12 통상 매년 2척으로 약 4개월 정도 정박하고 출항하였다.

포커스 I



그림 5 복원된 데지마 외관(필자 촬영)

데지마바시가 있었던 곳이며, 부채 모양의 데지마 안쪽의 모습이다. 현재는 다리가 놓여 있다.



그림 6 복원된 데지마 내부의 건물(필자 촬영)

오른쪽이 부상관장의 주거지, 왼쪽이 1번 선박의 선장실과 1·2번 창고의 모습이다.

란드인의 외출을 금지한다는 두 개의 뜻말까지 게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통제’였으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일종의 ‘합법적인 감옥’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데지마는 서양과학문명과 선진기술의 유입창구였고, 동시에 네덜란드인은 근대로의 선도자와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18세기에는 난학으로 발전하여 일본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이후 일본의 개국과 함께 1856년 일란화친조약에 따라 데지마의 네덜란드인은 해방되었고, 1858년 일란통상조약에 의해 일본인의 데지마 출입도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데지마 상관은 네덜란드의 영사관을 겸하였고, VOC의 무역업무도 네덜란드무역회사로 이관되어 1641년 이래 데지마 상관은 역사의 막을 내린다. 현재 데지마는 1996년부터 제1기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2000년에 발굴조사와 건물 복원 등을 완료하였고, 2001~2006년까지는 제2기 사업으로 데지마를 둘러싼 석벽 중에 남측 131m를 복원하여 부채 모양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5·6).

5. 근세 일란 관계, 그 역사적 의미

그렇다면 근세 일본의 국제관계 속에서 데지마와 일란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역사적 의미 부여 문제는 일본의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른바 ‘일본형 화이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맺음말을 대신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우선, 당시 일본이 조일 간 외교·무역거점으로 부산의 왜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데지마 상관에는 거역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즉, 네덜란드는 매년 은 55관(貫, 초기에는 80관), 지금의 액수로 약

포커스 I

1억 엔(한화 약 9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을 지주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측은 데지마가 다른 어떤 무역지보다도 큰 이익을 창출하는 동아시아의 무역거점인 동시에 교두보였기에, 일본의 강압적 통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네덜란드(VOC)가 일본 관계를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과 조선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무역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를 포기했었다는 것,¹³ 당시 VOC는 실론(Ceylon)·반다(Banda)·몰루카(Moluccas)·바타비아·소롱(Sorong)·타이¹⁴ 등의 상관에서 모두 무역적자 상태였는데, 데지마 상관에서 얻는 이익으로 그 결손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점,¹⁵ 또 일본무역에 대해 당시 네덜란드가 “회사(VOC)의 육지 무역과 인도(동아시아) 이윤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¹⁶을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데지마 상관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생명줄과도 같은 무역 요충지였다.

그렇기에 데지마로 이전한 1641년부터 막부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매년 세계 각국의 정보를 데지마 상관장이 직접 작성하여 『네덜란드풍설서(阿蘭陀風說書)』로 막부에 제공한 것이다.¹⁷ 더욱이 1840년부터는

13 신동규, 2007,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398-404쪽.

14 현재 실론은 스리랑카, 반다·몰루카·소롱·바타비아는 인도네시아에 포함되어 있다. 바타비아는 자카르타의 옛 지명이다.

15 永積昭, 앞의 책, 112쪽.

16 오스카·나호트 著, 富永牧太 譯, 1956, 『十七世紀日蘭交涉史』, 天理大學出版部, 292쪽.

17 상관장이 네덜란드어로 작성한 것을 일본인 통사(通詞)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

포커스 I

네덜란드 동남아시아무역의 거점인 바타비아 상관에서 작성한 『별단풍설서(別段風說書)』까지도 자진해서 막부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를 통해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했다는 외국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일본 지식인과 위정자들이 서양 제국에 대해 강렬한 위기를 느끼고 그 대응으로서 부국강병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일본 학계에서는 쇄국·해금에 의한 대외관계 통제를 근거로 근세시기에 이른바 ‘일본형 화이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1970년에 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의 일본형 화이의식¹⁸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일본형 화이질서는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공통으로 보이는 ‘해금’ 개념과 연결되어 명청 교체 이후의 국제관계를 일본 중심으로 파악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학계에 퍼져 있다. 하지만, 근세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총체적으로 적용한 학설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아직 고민해야 할 문제 또한 내재하고 있다.

일본형 화이질서론에서는 외국과의 관계를 설정한 ‘4개 해외창구(일본에서는 四つの口)’와 쇄국·해금정책을 통해 이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4개의 해외 창구라는 것은 현재 일본 고등학교의 『일본사 B』 교과서에 게재¹⁹될 정도로 일본사에서 완전히 정착된 개념이다. 즉, 조선 관

이다. 이와 함께 막부는 나가사키 도진마치(唐人町)의 중국인들에게도 『당선풍설서(唐船風說書)』라는 중국 중심의 외국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고 있었다.

18 朝尾直弘, 1970, 「鎖國制の成立」, 『講座 日本史(4)』, 東京大學出版會, 80-81쪽.

19 高橋秀樹·三谷芳幸·村瀬信一, 2016, 「鎖國から「四つの口」へ」, 『ここまで変わった日本史教科書』, 吉川弘文館.

포커스 I

계를 담당한 쓰시마 창구(對馬口=對馬藩), 유구(琉球) 관계를 담당한 사쓰마 창구(薩摩口=薩摩藩), 북방 아이누(Aynu)와의 관계를 담당한 마쓰마에 창구(松前口=松前藩), 그리고 데지마에서의 네덜란드 관계, 도진마치(唐人町)에서의 중국 관계를 담당하며 3개 창구를 통괄하는 막부의 직할령 나가사키 창구(長崎口=長崎奉行)를 말한다.²⁰ 나가사키 창구는 다른 세 창구와 달리 서양과의 유일한 교류창구였다. 동시에 중국과도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일본의 필수품인 생사(生絲)를 수입하기 위해서도 중요했기에 도진마치를 만들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도진마치도 그리스도교, 풍기문란, 밀무역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데지마와 마찬가지로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런데 일본형 화이질서론에서 말하는 4개의 창구에서 행해진 일련의 외교적 행위의 근거는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장의 에도참부, 조선의 통신사 방문, 류큐 사절과 아이누의 의례관계 등이며, 이것이 막부에 대한 일종의 복속의례인 동시에 바로 일본형 화이질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 하지만, 조선통신사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은 기미(羈縻)와 회유(懷柔)의 대상이었고, 그 목적은 쇼군(將軍)의 습직 축하와 일본의 정탐이었다. 또한,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장이 에도참부까지 하며 막부에 고개를 숙인 것은 어디까지나 막부에 대한 복속이나 복종이라는 차원을 떠나 일본무역의 막대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1630년 네덜란드 바타비아 상관장 자크 스펙스(Jacques Specx)가 1628년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일

20 鶴田啓, 1992, 「近世日本の四つの「口」」,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アジアの中のい日本史(2)-外交と戦争』, 東京太學出版會.

포커스 I

어난 타이완사건²¹의 해결을 위해 빌럼 얀센(Willem Jansen)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 큰 선물과 막대한 지출을 의결했는데, 일본과의 자유무역은 회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일본인은 진실로 위대하여 긍지가 높으며, 네덜란드인은 비소(卑小)하다고 해둘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일본형 화이질서와 관련된 논점은 관련 상대국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 중심의 시각에서 자의식을 강조한 결과였다. 일본형 화이질서론을 주장한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역시 이점에 대해서 화이질서는 확실히 각기 자국의 굳건한 자립성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편협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²² 그리고 “18세기 동아시아에서 일본·중국·조선이 각자의 화이질서를 설정해 타협하는 동시에 각자의 해금을 실시해 국제분쟁을 최소한으로 저지하면서 안정된 국제관계를 영위하는 상태가 출현했다”²³고 하여, 주변 국가 각자의 화이질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에 한정하면 일본형 화이질서의 특징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주변국의 정치적 자주성을 부각한 전근대 국제관계론이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그 성과와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형 화이질서가 역사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화이(華夷)와 질서(秩序)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인지와

21 타이완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네덜란드와 이전부터 타이완 근해 지역에서 무역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 주인선(朱印船) 무역상 간의 대립이 발단이 되어 막부가 히라도 상관을 잠정 폐쇄한 사건이다. 이 분쟁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5년간 무역정지, 상관원에 대한 구금 및 네덜란드 선박의 억류라는 제재를 받았다.

22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서문(xii쪽).

23 위의 책, 서문(xi쪽).

“
일본형 화이질서가 역사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화이와 질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인지와
수용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

수용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강조해서 말하자면, 당시 일본이 ‘화(華)’이고 타국은 자신들 스스로가 ‘이(夷)’라는 것에 대해 상호 인정하여 받아들였어야 하며, 이 위계의 실체가 ‘질서’라는 실질적인 외교 형태로 명확히 드러나야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의 시각과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에 데지마로 본 일란 관계 역시 일본형 화이질서라는 측면에서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동규(申東珪, Shin, Dong-kyu)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 릿쿄대학(立教大學)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사학)를 받았다. 에도시대 일본의 국제관계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대 사진그림엽서와 팸플릿·사진첩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프로파간다 관련의 역사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커스 II

제국의 시대와 섬

사할린섬과 안톤 체흠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삼도, 포트 해밀턴, 그리고 거문도

한승훈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오가사와라제도의 역사와 조선 망명자의 유배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사할린섬과 안톤 체흠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사할린섬의 역사

17~18세기 러시아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관한 정보를 소유했다. 1700년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레메조프(C. Y. Ремезов)는 자신의 시베리아 지도에 쿠릴열도를 표시했다. 1779년 4월 30일 예카제리나 2세(Екатерина II)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 러시아의 신민이 된 쿠릴열도 주민’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유럽인의 사할린섬에 관한 지도 작성과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87년 프랑스인 라페루즈(Jean 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pérouse)가 동해를 탐사하면서 사할린을 반도로 착각했다. 1786년 영국인 브

* 이 글에서 러시아어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였다.

포커스 II

라우톤(V. Broughton)도 아무르와 사할린이 반도로 이어진 지도를 만들었다.

둘째 1805년 크루젠슈테른(И. Ф. Крузе нштерн)도 라페루즈의 지도를 이용하여 사할린을 반도로 파악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V. D'Anville)의 <신중국지도>에는 사할린섬이 그려졌다. 그 지도에는 “사할린의 서쪽 해안 아무르 하구 맞은편에 ‘Saghalien-angahata’라고 표기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Saghalien-angahata’의 의미는 만주어로 ‘검은 강의 암벽’이다. 여기서 사할린섬의 명칭이 유래되었고 크루젠슈테른도 러시아 지도에 사할린으로 표기했다.

셋째 1849년 네벨스꼬이(Г. И. Невельской)가 사할린을 ‘섬’으로 바로잡았다. 네벨스꼬이는 삿찌르부르크에 사할린섬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의 사할린섬 개척의 역사는 다음과 같았다.

1852년 네벨스꼬이는 해군대위 보쉬냐크(Лейт. Бошняк)와 흐보스토프(Хвостов)를 사할린에 파견했다. 네벨스꼬이는 사할린의 석탄층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할린섬

포커스 II

보쉬냐크를 락미강(река тыми)에 보냈다. 네벨스꼬이는 사할린에 남겨진 러시아인을 조사하도록 흐보스토프를 파견했다. 흐보스토프는 러시아인이 “토마리-아니바(Томани-Анива) 마을에 1805년 8월 17일에 정착했고, 1810년 락미강 유역으로 옮겼다”고 조사했다.

러시아는 1853년 남사할린의 로소시만해안(Бухты Лососей)에 무라비요프스끼 초소지(Муравьевский пост)를 설치하였다. 무라비요프스끼 초소지는 남사할린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립에 기여했지만,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뻬쨌르부르크조약에 따라 폐지되었다.

1855년 러일 양국이 시모다조약(下田條約, 露日和親條約)을 체결했는데, “사할린섬은 국경을 정하지 않고 기존에 성립된 것을 존중할 것”을 확인하여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

1862년 러시아는 식민의 목적으로 사할린에 러시아인 8명을 보냈다. 그리고 1869년 사할린섬 자유촌에 농업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농업연구소는 징역유형수의 강제노역을 농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868년 러시아위원회는 사할린에 대규모 해양교도소의 설립을 논의하였다. 사할린이 거친 바다로 대륙으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륙과 사할린섬을 갈라놓은 해협은 “겨울철에는 완전히 얼어붙으며 들처럼 평평하고 매끄럽게 되어 누구나 걸어서 혹은 개썰매를 타고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1868년 동부 시베리아 군사총독은 식민을 위해 러시아인 21세대를 남사할린에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유 신분의 농민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2년간 밀가루와 탈곡한 곡물의 무상 제공, 농기구·가축·종자·현금의 5년 이후 변제, 향후 20년간 세금과

포커스 II

징집 면제 등을 농민에게 약속했다. 1869년 8월 농민들은 기선 만주호를 타고 무라비요프스키 초소지에 도착했다. 이주민은 아니바(Анива)곶을 돌아 오희츠크해를 따라 나이부치 초소지를 거쳐 11월 20일 따꼬예(Такое)계곡에 도착했다. 이주민은 여러 차례의 흉작을 겪은 이후 1875년 결정적인 흉수로 농사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다.

그 후 이주민은 아니바만 연안, 꼬르사콥스키에서 무라비요프스키 초소지로 가는 도로의 중간 지점에 치비사니(Чибисани)라는 이주민촌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10년 동안 단지 사냥과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1886년 우스리스크 지방으로 재이주했다.

1881년 알렉산드롭스키 초소지(Алексадровский пост)가 설치되었다. 러시아는 초소지 설치와 함께 장군을 포함한 새로운 직위도 만들었다. 주변에는 자유촌(Слободка)이 두에(Дуэ)에서 60여 km 떨어진 장소에 이미 형성되었다. 감옥은 두이까(Дуйка)강변에 자리잡았다. 점차 초소지 주변에 관청가가 발달되었다. 관리들의 주거지·관청·교회·창고·상점 등이 들어섰다. 오로지 도시의 공기를 호흡하고 오직 도회적인 사무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초소지를 둘러싼 지역은 ‘사할린의 파리’라 불렸다. 자유촌은 술꾼·도박꾼·약자 등이 몰려들었다. 취하고 싶거나 흠친 것을 팔고 싶거나 아니면 불순한 것에 영혼을 팔고 싶을 때에 사람들이 자유촌으로 몰려들었다.

1881년 동물학자 뿔라꼬프(Поляков)는 두이까강(Река Дуйка, 알렉산드로프강)을 탐사했다. 뿔라꼬프는 조사에 기초하여 “두이까(Дуйка)계곡에서 칼모양 흑요석 파편, 돌화살촉, 숫돌, 돌도끼 등이 발견되었다. 두개골, 곰과 개의 뼈, 어망추 등도 발견되었다”고 기록했다. 체홉은 사할린에 거주한 사람들이 “토기 제작을 알고 있었고 곰을 사냥하거나 투망으로 고기

“

1875년 러일 양국은 삿페르부르크조약을 조인했는데 사할린섬 전체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대신 일본은 쿠릴열도를 소유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북위 50도선 이남의 사할린섬 남부를 넘겨 받아 이 지역에 가라후토 민정서를 설치했다.

”

를 잡았고 개들을 사냥에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1886년 나이부치 초소지(Пост Найбучи)가 건설되었다. 나이부치의 미쥘(Мицুলь)에는 주거와 비주거용 건물 18동, 작은 예배당, 식료품 상점이 있었다.¹

1875년 러일 양국은 삿페르부르크조약을 조인했는데 사할린섬 전체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대신 일본은 쿠릴열도를 소유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북위 50도선 이남의 사할린섬 남부를 넘겨 받아 이 지역에 가라후토(樺太) 민정서(民政署)를 설치했다. 그런데 1945년 8월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사할린섬 남부를 다시 점령했다.

2. 체흠의 사할린섬 방문과 『사할린섬』 저술

2009년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그의 작품 『1Q84』에서 1895년

1 Л.Н.Кута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М. 1964; Э.Я.Файн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 гг. М. 1960;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
체홉은 1890년 4월 21일 모스크바를 출발,
4월 29일 예카제린부르크에 도착했다. 그는 시베리아를 횡단한 뒤
7월 11일 사할린섬에 도달했다. 체홉은 10월 13일
사할린섬을 출발하여 12월 8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А. П. Чехов, 1860~1904)이 저술한 『사할린섬』을
비중 있게 다뤘다. 그 결과 『사할린섬』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다.

러시아 작가 체홉은 1890년 4월 21일 모스크바를 출발, 4월 29일 예카
제린부르크에 도착했다. 그는 시베리아를 횡단한 뒤 7월 11일 사할린섬
에 도달했다. 체홉은 10월 13일 사할린섬을 출발하여 12월 8일 모스크바
에 도착했다.

1890년 체홉은 기차·선박·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사할린에 도
착했다. 그는 1890년 4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야로슬라블(Ярославль)까
지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볼가강을 따라 내려가서 강의
지류인 까마(Кама)강을 거슬러올라 27일 우랄산맥 서쪽에 위치한 페름
(Пермь)에 도착했다. 다시 기차로 우랄산맥을 넘어 쥬멘(Тюмень)까지
갔다. 당시 쥬멘에서 동쪽으로는 아직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기에 마차로
만 여행이 가능했다. 5월 3일 쥬멘을 출발하여 옴스크(Омск)를 거쳐 범
람한 톰(Томь)강을 배로 건너서 톰스크(Томск)에 도착했다. 체홉은 5월
20일 톰스크를 출발하여 시베리아 대로에서 악명 높은 꼬줄까(Козулька)
구간에서 악전고투를 거쳐 6월 4일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에 도착
했다. 6월 11일 이르쿠츠크를 떠나 배를 타고 바이칼호를 건넌 후 치타

포커스 II

(Чита)를 거쳐 스투젠스크(Сретенск)까지 다시 마차로 여행했다. 그곳에서 예르막(Ермак)호를 타고 아무르(Амур)강을 따라 7월 5일 태평양 연안의 니콜라옙스크(Николаевск)항구에 도착했다. 7월 8일 기선 바이칼호를 타고 타타르해협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데까스뜨리(Де-Кастри)에서 1박을 한 다음 7월 11일 사할린 중부의 알렉산드롭스크(Александровск)에 도착했다.

체홉은 여행 기간 중 저녁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여행 관련 기록도 정리했다.²

나는 이불 위로 올라가 누워 책을 읽다가 다시 내려와 글을 쓰고 있다.

저녁 무렵부터 새벽 2시까지 나는 책을 읽거나 세대조사표와 알파벳순 인명부에서 발췌하여 옮겨 적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체홉은 사할린섬 여행 이후 1893년 10월부터 1894년 7월까지 러시아 사상(Русская мысль)에 『사할린섬』을 연재하였다. 1895년 『사할린섬』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390여 쪽의 현장보고서였고, 전체 23장으로 구성되었다.

2 Чехов А.П. Из Сибири.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23;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159. 체홉, 2012, 『안톤 체호프 사할린섬』, 동북아역사재단, 10쪽. 체홉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의학부 출신으로 『갈매기』(1896), 『세자매』(1900), 『벚꽃동산』(1903) 등을 썼다. 체홉은 시베리아와 사할린섬 여행 이후 인간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 체홉은 사할린의 버려진 자들을 보면서 허구의 소설로 『사할린섬』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장보고서로 현실의 삶을 고발했다.

포커스 II



안톤 체홉

내용을 살펴보면, 1~3장은 니콜라옙스크에서 아무르강 하구까지 여행 과정, 사할린 도착과정, 사할린 유형수의 조사 등이 실려 있다. 4~11장은 사할린 알렉산드롭스크지구의 유형수와 농민, 아이누인과 길라크인의 역사 등이 실려 있다. 12~14장은 남사할린 조사, 러시아의 사할린 영유권 역사 등이 실려 있다. 15~23장은 사할린 유형수 주민의 구성, 여성문제, 유형수의 가족생활, 유형수의 도덕성과 범죄성 등이 실려 있다.

체홉은 『사할린섬』을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했다.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사할린섬에 대한 학술지, 즉 광산저널, 해양총서, 역사통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체홉은 사할린 농업감독관의 보고서를 열람하며 『사할린섬』을 저술할 수 있었다. 그는 사할린섬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체홉은 유형수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모든 집을 돌아다니려고 노력했다. 그는 집 주인 부부, 가족, 동거인, 일꾼 등을 직접 기록했다. 또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 부속 인쇄소의 카드를 사용했다. 체홉은 첫 줄에 초소지 혹은 마을 이름을 기입했다. 다음으로 가옥번호와 기록자의 신분을 기록했다.³

3. 체홉이 사할린섬을 방문한 이유

체홉은 왜 시베리아와 사할린을 방문했을까?

그의 『사할린섬』과 편지에는 그의 사할린섬 여행 이유를 추정할 단서가 존재한다. 체홉은 1890년 7월 22일 연아무르총독 꼬르프(A. H. Корф)에게 “공식적인 업무 없이 사할린에 왔다”고 대답했다. 당시 체홉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특과원용 용지가 있었지만, 사할린에 관해 신문에 기고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체홉은 자신의 시베리아 횡단 중 여행을 후회하는 내용도 기록했다. 그는 기선 바이칼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커다란 파도에 지연되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왔단 말인가? 스스로 물어본다. 내 여행은 스스로 생각해도 극단적으로 경솔한 것이다.⁴

3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 70, 142-143, 293.

4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 45, 67-68.

“

체홉은 ‘위안’을 얻으려고 시베리아와 사할린 여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그런데 체홉은 러시아 식민지의 모습 및 유형수에 대해 관찰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

그는 자신의 신세도 한탄했다. “위안을 얻고자, 이제 봄이 되어 차가운 비도 창을 때리지 않을 거라고 시베리아를 사모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체홉은 “이 지긋지긋한 권태! … 촛불은 다 타버렸고 또 들리는 외침소리… 되돌아가자니 그렇고”⁵라고 기록했다.

그는 1890년 3월 9일 수보린(А. С. Суворин)에게 “사할린은 죄수들로 구성된 식민지다. 나는 러시아 사회에서 사할린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⁶고 사할린 여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단서를 통해 체홉의 사할린행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여행과정을 신문에 연재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할린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실제 체홉은 1890년 7월 『노보예 브레냐(Новое время)』에 시베리아 여행만 기고했다.

체홉은 ‘위안’을 얻으려고 시베리아와 사할린 여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그는 잠시 시베리아라는 이국적인 자연에서 자신의 현실적 고민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러시아 사회에서

5 Чехов А.П. Из Сибири.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23.

6 Чехов А.П. Письм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23, 399.

7 А.П. Чехов. Письм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509.

포커스 II

사할린섬의 필요성에 대한 체홉의 고민이었다. 그는 러시아 식민지의 모습 및 유형수에 대해 관찰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체홉 소설의 전환은 사할린섬이었다. 그는 1891년 10월 19일 언론인 수보린(A. C. Суворин)에게 “만일 내가 의사라면, 나한테는 환자와 병원이 필요하고, 만일 내가 작가라면 나는 민중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⁷라고 편지를 보냈다. 체홉은 사할린섬에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민중 속에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꿈, 즉 ‘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 즉 ‘재’에 불과하다.



김영수(金榮洙, Kim, Young-s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 및 사학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짬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관파천』(2012, 경인문화사), 『명성황후 최후의 날: 서양인 사바짬이 목격한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억』(2014, 말글빛냄), 『제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2019, 동북아역사재단), 『고종과 아관파천: 이희, 러시아공사관에서 375일』(2020, 역사공간), 『100년 전의 세계 일주: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민영환의 비밀외교』(2020, EBS BOOKS) 등이 있다.

삼도, 포트 해밀턴, 그리고 거문도

한승훈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여수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20분 정도 가면 거문도에 도착한다. 거문도는 세 개의 섬(동도, 서도, 고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문도의 옛 이름은 삼도였다. 클 거(巨), 문자 문(文)이 합쳐진 ‘거문’이라는 이름은 1885년 이후부터 쓰였다. 인터넷에서 거문도를 검색하면 함께 나오는 단어는 바로 포트 해밀턴이다.

삼도(三島), 거문도(巨文島), 포트 해밀턴(Port Hamiton), 이 모든 이름은 1885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관련이 깊다. 청의 정여창(丁汝昌) 제독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문도에 갔다가, 그곳 주민의 학식에 감탄한 나머지 ‘거문’이란 이름을 남겼다고 한다. 섬 사람들도 조정에서도 마음에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섬 이름을 거문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삼도는 역사에서 사라져 갔다.

영국이 거문도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불렀다는

포커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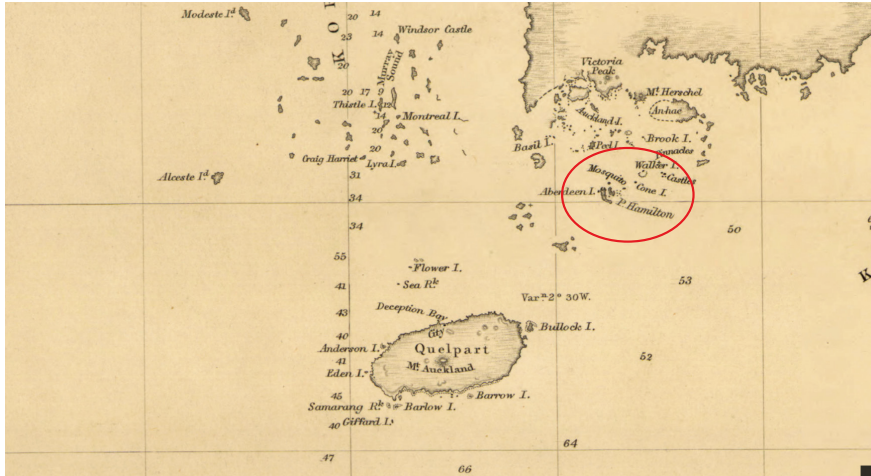


〈영남호남연해형편도(嶺南湖南沿海形便圖)〉에 그려진 삼도(거문도)(연도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흥양현지도(興陽縣地圖)〉에 그려진 삼도(거문도)(18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포커스 II



<영국 해도 Chart2347>에 그려진 거문도(Port Hamilton), 제주도(Quelpart) 및 인근 도서(Nipon, Kiusin and Sikok and a part of the coast of Korea, 1855)



1866년 10월 10일 영국 해군 스왈로우(Swallow)호의 마스터(E. Wilds Master)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거문도 스케치(ADM344/1579 수록, 영국국립공문서관 소장)

포커스 II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다. 1845년 영국 군함 사마랑호(H. M. H. Samarang)는 한반도 남해안을 탐사하다가 거문도를 발견했으며, 그날 이후 영국은 해군 차관 해밀턴(William Baillie-Hamilton)의 이름을 따서 거문도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공식적인 섬의 이름은 거문도이지만, 포트 헤밀턴은 거문도의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1. 침략과 우호가 공존하는 거문도

거문도는 1885~1887년 영국이 점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 조정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 아문의 독판(지금의 외교부장관) 김윤식은 “모든 계층과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매우 걱정하기에, 조선 조정은 “조용히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영국에 항의했다. 오늘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서술하고 있다.



거문도역사공원 전경[거문도관광발전협의회(www.거문도.kr) 제공]

“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군 묘지 일대를
‘거문도역사공원’으로 만들었으며, 머나먼 타지에서 생을 마감한
영국군을 위해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

19세기 후반 제국의 침략을 몸소 느낀 곳이 거문도였다. 거문도에는 아직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던 흔적이 있다. 거문도와 상하이를 연결한 해저전신 케이블의 잔해도 그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후대 사람들은 ‘침략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억의 공간으로 점령의 흔적을 복원한다.

그런데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의 침략만을 복원하지 않는다. 거문도에는 영국 해군이 한국 최초로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경기를 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밀턴 테니스 코트’를 운영하고 있다. 거문도의 고도(古島, 孤島)에는 영국 군인 세 명이 잠들어 있다.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군 묘지 일대를 ‘거문도역사공원’으로 만들었으며, 머나먼 타지에서 생을 마감한 영국군을 위해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자 2005년부터 주한영국 대사관에서는 거문도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왜 거문도는 영국의 침략을 상징하는 공간과 이름에 우호적인 감성을 입혔을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을 당시부터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 해군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왜 거문도 사람들은 영국 군인들을 좋아했을까? 그 기원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문도 사람들과 영국 해군의 만남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2. 영국 해군을 손님으로 맞이한 거문도 주민

1884년 12월 20일 영국 군함 멀린(Merlin)호가 거문도에 도착했다. 영국 해군이 거문도에 군함을 파견한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1884년 12월 4일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발발했다. 갑신정변은 조선의 개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지만, 청 군대와 일본 군대가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갑신정변은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러자 영국은 러시아가 조선 문제에 개입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문도 점령을 고려하였으며, 점령을 위한 예비조치로 멀린호를 거문도로 파견했던 것이다.

거문도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국 해군을 배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 덕분에 영국 해군은 주민들과 한자로 필담을 나눌 수 있었다. 영국 해군들은 거문도 주민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많은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5일 남짓 영국 해군은 거문도에 머물면서 주민들과 교류했다. 멀린호 함장 브렌튼(Reginald Carey-Brenton) 중위는 거문도 주민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¹

전반적으로 이 원주민들은 인내심, 도덕성, 근면함을 바탕으로 고분고분하고 청렴해 보이며, 그들의 조건과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지적 수준을

1 "Report of Port Hamilton," December 26, 1884, Confidential, ADM 116/70, Part I[영국국립공문서관(The National Archives United Kingdom, TNA) 소장, 해군부 문서]

포커스 II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문도 주민들이 온순한 기질의 유럽 국민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들을 다루는데 주된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섬 주민들이 갖는 배타적인 성향은 아마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 해군은 유럽인들이 거문도 주민들에게 온순하게 대하면, 거문도 주민들 역시 고분고분하게 따를 것으로 보았다. 영국 해군이 보기에 굳이 강압적으로 거문도 주민을 대할 필요가 없었으며, 더 나아가 주민들이 영국의 통치에 순응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왜 거문도 주민들은 1884년 12월에 나타난 영국인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을까? 영국 해군이 무력을 동원해서 거문도 주민을 강압하지 않았기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사실이 있다. 사실 거문도 주민들에게 영국인들이 그리 낯설지 않았을 수 있다. 바로 9년 전인 1875년 8월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의 해군과 외교관의 방문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 영국이 군함을 거문도에 파견한 이유는 조선과 일본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그해 일본이 군함을 부산에 파견해서 무력시위를 전개하자, 주일영국공사 파크스(Harry Smith Parkes)는 일본이 러시아와 함께 조선을 침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파크스는 본국 외무부에 러시아의 조선 남하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거문도 점령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일영국공사관의 서기관 플런켓(F. R. Plunkett)을 거문도로 파견했던 것이다

1875년 8월 4일 11시 영국 군함 플로릭(Frolic)호가 거문도에 도착하자, 약 300여 명의 거문도 주민들이 영국 군함 주변으로 모였다.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 해군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는 ‘거칠고 불

“
영국 해군은 거문도 주민들에게 점령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거문도 주민 역시 영국인들을 손님으로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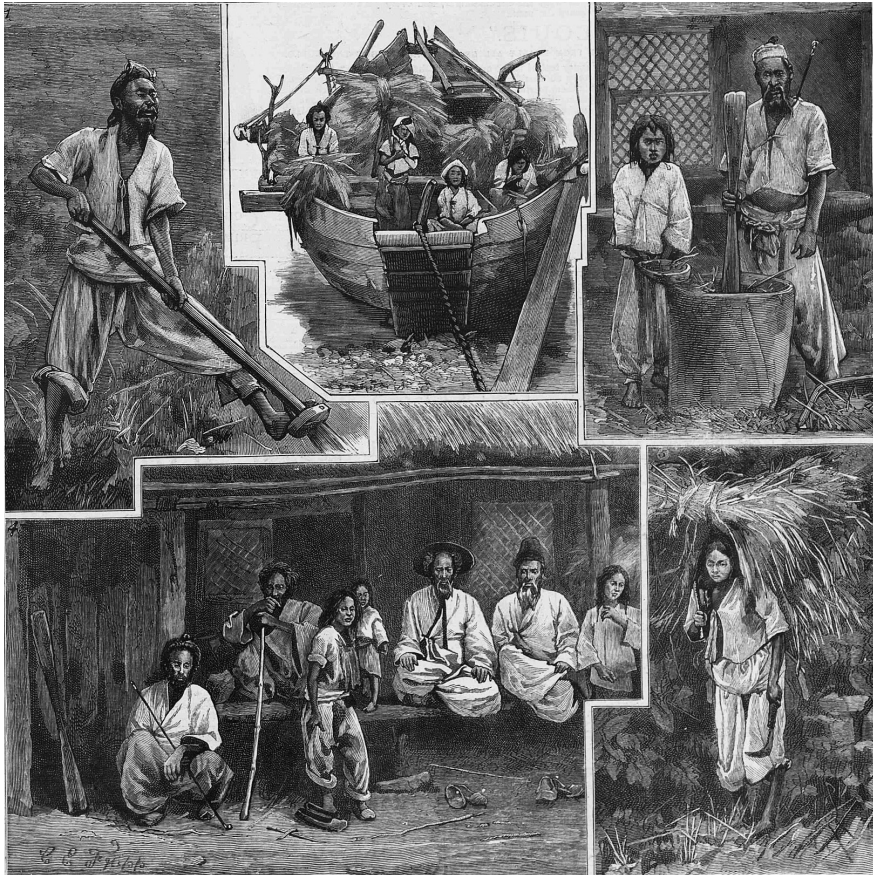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인들에게 친절했다. 그러자 영국 해군도 거문도 주민들을 군함에 태우기도 했으며, 군함에 동승했던 영국인 의사는 거문도 주민의 눈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

1875년 거문도 주민 앞에 나타난 영국은 점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기에 거문도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플런켓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도 '통제'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거문도 주민들에게 점령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거문도 주민 역시 영국인들을 손님으로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영국 해군의 호의에 감춰진 거문도 '약탈' 계획

1885년 4월 영국 해군은 점령군으로 거문도 주민에게 나타났다. 영국 해군은 거문도 주민이 살지 않는 고도에 자리를 잡았다. 고도는 영국 해군의 주둔을 위한 기지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막사가 건설되었고, 군함의 정박을 위해서 항만시설이 조성되었다. 거문도 주민에게 영국 해군은 더 이상 1875년 7월과 1884년 12월에 잠깐 머물렀던 존재가 아니라,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어찌 보면 매일 봐야 할 대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거문도 주민들에게는 영국 해군의 점령 이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삶의



『그래픽(The Graphic)』, 1885년 11월 14일 자에 실린 ‘동아시아의 새로운 우리 항구 포트 해밀턴의 기록(Notes at Port Hamilton, Our New Harbour in the East)’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굶주림이었다. 거문도 주민들은 최악의 기근과 싸우고 있었다. 고기잡이로 계속된 흉년을 극복하면 좋으련만, 거문도 인근 해안은 이미 일본인 어부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직후, 조정에서 파견 나온 엄세영은 잇따른 흉년과 일본인의 어업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거문도 주민들을 목격했다. 이에 그는 조선 조정이 직접 거문도 주민들의 구휼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거문도 주민들의 굶주림은 엉뚱한 곳에서 해결되었다. 영국 해군은 거문도 주민으로부터 막사 부지를 임대했다. 막사를 짓기 위해서 거문도 주민들을 고용했다. 막사 이외에 주둔을 위한 시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해군은 거문도 주민들로부터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토지를 임대했다. 거문도 주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으며, 영국 해군은 곡식으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면서 거문도 주민들은 점차로 기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거문도 내 곡식이 남아돌게 되자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 측과 협상을 전개했다. 협상의 요지는 임금을 곡식이 아닌 현금으로 대신하는 것이었다.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 군함의 주둔으로 어업 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했다. 결국 거문도 주민과 영국은 일당 75전, 즉 7.5냥에 합의를 보았다. 오늘날 1냥의 가치를 10만 원 이내로 파악한다면, 거문도 주민들은 결코 나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해군이 2년 남짓 거문도에 주둔하는 동안 거문도 주민과의 사이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은 듯하다. 영국은 자신들이 거문도 주민들의 풍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거문도뿐만 아니라 조선, 심지어 북중국에서 영국에 대한 평판이 올라갔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래픽(The Graphic)』, 1887년 2월 12일 자에 실린 '현 상황의 포트 해밀턴 (Port Hamilton as It Is)'

“
심지어 영국 해군은 거문도 주민들을 섬에서 쫓아내고 섬 전체를 차지할
궁리를 했다. 영국은 거문도를 영구적인 해군기지로 만들고자 했다.
”

영국 해군은 거문도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런던에 보내는 내부 보고서에서 거문도 주민들이 청결하지 않다면서 혐담을 늘어 놓았다. 거문도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로 여성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거문도 남성들을 “단순한 쟁기질”만 하는 게으른 존재로 비난하였다.

심지어 영국 해군은 거문도 주민들을 섬에서 쫓아내고 섬 전체를 차지할 궁리를 했다. 영국은 거문도를 영구적인 해군기지로 만들고자 했다. 마치 지중해의 몰타(Malta)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국이 거문도를 동아시아의 해군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번째는 조선으로부터 거문도를 조차함으로써, 영국의 ‘합법적인 지배력’이 관철되는 공간으로 거문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국이 ‘합법적인 지배력’으로 거문도 주민을 추방함으로써,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거문도 전체를 해군기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거문도 전체를 자국의 영구적인 해군기지로 만들려는 영국 해군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철수를 요구했다. 둘째, 청과 일본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가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빌미로 조선의 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소문도 제기되었다. 결국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이 러시아의 라디젠스키(Ladygensky)로

부터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자, 1887년 2월 영국은 거문도에서 군함과 병력을 철수시켰다.

4. 거문도 주민에게 친구이자 침략자로 남은 영국 해군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 해군의 장기 점령 계획을 몰랐다. 만약 영국 해군이 자신들을 섬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면, 거문도 주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해군에 맞서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끝내 영구적인 점령을 실현하지 않았다. 거문도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지도 않았다. 테니스를 치면서 여가를 즐기는 친절한 이방인으로 거문도에 있었다. 거문도 주민 중에는 영국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익힌 사람도 등장했다. 남성에게 국한되었지만,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거문도 주민들은 영국인들과 어울렸다.

1929년 영국인들이 거문도에서 떠난 지 거의 50년이 되었지만 거문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영국인을 친구로 여겼다.

거문도에 들어선 영국 사람과 도민 간의 우의는 껍이나 두터웠던 듯하다. 지금에도 영국 사람의 말을 한 사람도 나쁘게 말하는 이가 없다. 자기네 친구같이 말한다. 첫 번 웅거(雄據)하는 바람에 섬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회유의 책을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총을 들고 칼을 찬 군대같이 굴지 아니했다 한다.

『동아일보』, 1928년 7월 22일 ‘도서순례 26-거문도 방면 6’

오늘날 거문도 주민들은 여전히 영국에 우호적이다. 특히 거문도 주민

“
거문도 주민들은 침략의 공간에 우호의 감성을 덧붙임으로써,
거문도는 한국과 영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장소로 재탄생하였다.
”

들은 침략의 공간에 우호의 감성을 덧붙임으로써, 거문도는 한국과 영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장소로 재탄생하였다. 그 덕분에 테니스 동호인들은 한국 테니스의 ‘성지’ 거문도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영구히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음모’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영국 해군이 영구 점령을 목적으로 거문도 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는 계략을 문서로 남겼고, 영국 정부는 그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후대 역사가들은 거문도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추방’으로 되갚으려 한 영국 해군의 시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다.



한승훈(韓承勳, Han, Seung-hoon)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근현대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근대시기 행위 주체로서 한국인의 다양한 삶을 추적·연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오가사와라제도의 역사와 조선 망명자의 유배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오가사와라제도의 위치와 지리

일본 방송의 일기예보를 보면 일본 전국 지도의 동남쪽 한쪽 구석에 표시되는 섬이 있다.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이다. 한국의 일기예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의 기상 상황이 나오듯이 일본에서는 도쿄도(東京都)의 관내 지역으로 오가사와라제도의 날씨까지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오가사와라촌(小笠原村) 홈페이지와 오가사와라촌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다.

오가사와라제도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태평양에 산재한 많은 섬에 대한 총칭으로, 오가사와라군도[小笠原群島: 무코지마(鰐島), 지치지마(父島), 하하지마(母島) 열도], 가잔열도[火山列島: 이오열도(硫黃列島)],

포커스 II

세 개의 고립된 섬[니시노시마(西之島),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들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약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해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등 국가의 안전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¹

북위 20°25'~27°44', 동경 136°4'~153°59'의 광대한 해역에 크고 작은 30여 개의 섬들이 산재한 오가사와라제도. 영화나 뉴스로 유명한 이오도와 오키노토리시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약 3분의 1은 이러한 오가사와라의 섬들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모두 도쿄도에 속해 있지만, 본 섬인 지치지마에도 공항이 없고, 교통은 도쿄 다케시바부두(竹芝棧橋)에서 대개 6일에 1편을 운항하는 정기선뿐입니다. 진정 태평양의 대해원(大海原)에 떠 있는 외딴 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²

위 설명에 나오듯이 오가사와라제도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 전체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광대한 지역이다. 아열대성 해양기후로 온난다습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차가 적은 편이다. 도쿄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오가사와라제도의 지치지마까지 가는 교통편은 1주일에 한 번 다니는 선박 오가사와라마루(おがさわら丸, 11,035톤, 여객 정원 894명)를 이용해야 하는데, 편도로만 24시간이 걸린다. 오가사와라제도는 일본 본토로부터 태평양에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한 번 가기조차 쉽지 않은 오지라 할 수 있다.

1 www.vill.ogasawara.tokyo.jp/outline.

2 www.ogasawaramura.com/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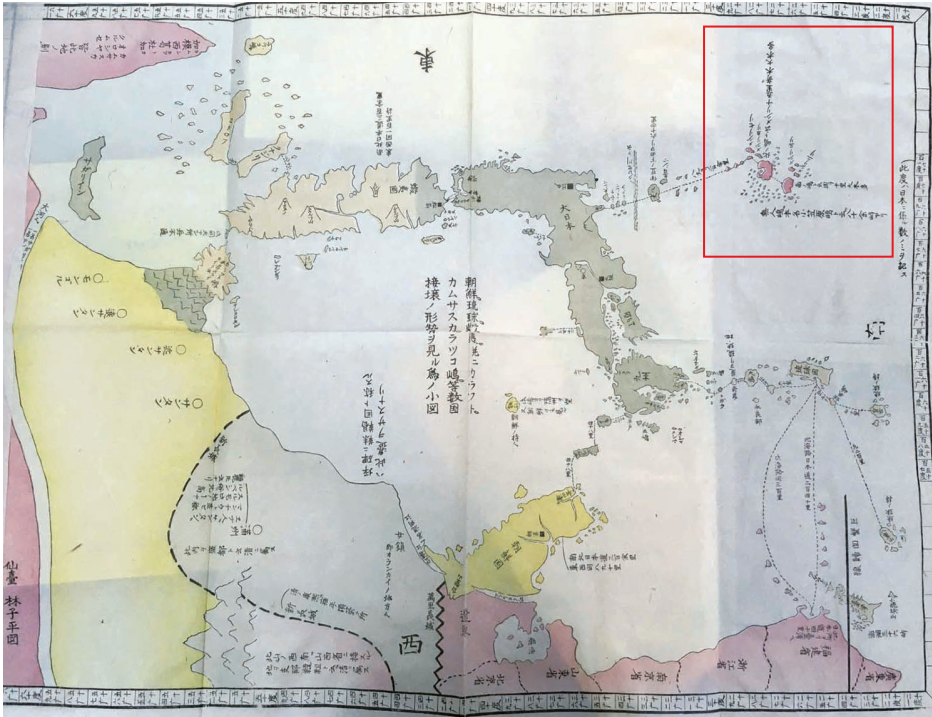
2. 무인도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

(1) 무인도 시기

1716년부터 1735년 사이에 간행된 고문서로 필자를 알 수 없는 『손무인도기(巽無人島記)』에 따르면, 오가사와라제도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인 1593년 마쓰모토(松本)의 성주 오가사와라 사다요리(小笠原貞頼)가 발견했다고 전한다. 1727년 사다요리의 자손을 칭하는 자가 에도(江戸)막부에 자신의 선조가 발견한 섬을 거론하면서 오가사와라제도에 도항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막부에서는 신청서의 기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자를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섬은 에도시대에는 ‘무인도(無人島)’로 지칭되었는데 여기에서 영문 명칭 ‘보닌섬(Bonin Islands)’이 유래했다고 한다. 에도막부는 1675년 시마야 이치자에몽(島谷市左衛門)을 포함한 32명을 보내 오가사와라제도를 순시하고 오도록 하였고, 시마야는 1개월 정도 체류한 후 돌아왔다. 하지만 한동안은 표류 외에 오가사와라제도에 정주하는 사람 없이 방치되었다.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에도에서 1785년 간행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록 가운데 하나인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에서는 일본 본토와 달리 붉은색으로 칠해 오가사와라제도를 무인도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는 하치조시마(八丈島)에서 ‘1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여러 섬을 두고 “무인도. 본명은 오가사와라섬(小笠原嶋)이라고 한다. 80여 섬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지도에는 동해의 울릉도(竹島)와 독도에 조선과 같은 노란색을 칠하고, “조선이 소지(朝鮮ノ持之)”했다는 문구도 담겨 있다(120쪽 지도 참조).

포커스 II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그려진 오가사와라제도

오가사와라제도가 다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서양의 포경선이 태평양을 왕래하던 1820년대부터였다. 1823년에는 미국의 트랜짓(Transit)호, 1825년에는 영국의 서플라이(Supply)호, 1827년에는 영국 함선 블로섬(Blossom)호가 기항하였다. 오가사와라제도에 각국의 포경선이 드나들면서 섬에 정주하는 이탈리아·영국·미국 출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837년 8월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출항하던 선박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런던,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리스본, 이탈리아 시칠리아, 미

포커스 II

국 보스턴, 덴마크 코펜하겐, 샌드위치제도(하와이) 출신자들을 합쳐 전체 4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을 개항하기 위해서 출항한 매튜 페리(Matthew C. Perry)가 이끄는 동인도함대는 1853년 오가사와라제도에 기항하였다. 이때 페리는 지치지마 거주 미국인 나다니엘 사보리(Nathaniel Savory)에게 저탄소(貯炭所)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였다.

오가사와라제도 내 외국인 거주와 페리의 내항 소식을 접한 에도막부는 1861년[분큐(文久) 원년] 12월 가이고쿠부교(外國奉行) 미즈노 다다노리(水野忠徳) 일행을 간린마루(咸臨丸)에 승선시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3월까지 미즈노의 섬 체류와 조사를 통해 지치지마와 하하지마(母島)에 미국과 네덜란드, 하와이 출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막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일영국공사 러더퍼드 올콕(Rutherford Alcock)은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령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서 1827년 영국이 이 섬을 처음 취했다는 사실과 섬 거주자를 통한 페리의 토지 구입 등을 거론하였다. 같은 해 8월 막부는 금전과 쌀, 경작지 지급 등의 유인 동기를 부여하여 하지조시마 거주민 38명을 모집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을 조요마루(朝陽丸)에 태워 오가사와라제도까지 이주시켜 섬을 개척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853년 5월 관리와 이주민 모두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조요마루를 타고 퇴거하였다. 에도막부가 퇴거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전년 영국인이 살해당한나마무기(生麥)사건으로 인해 영국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2) 일본 영토 편입 시기

오가사와라제도의 귀속 문제는 1873년 5월 외무성 관리 우에노 가케노리(上野景範)가 주일영국공사 해리 파크스(Harry S. Parkes)와 면담하는



1861년 간린마루 파견 당시의 지치지마(小笠原島圖繪), www.vill.ogasawara.tokyo.jp/history

과정에서 다시 등장했다. 파크스는 막부가 섬에 관리를 파견했다가 퇴거시킨 점, 섬에 영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20명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오가사와라제도를 방기했다고 지적하였다.

1874년 1월 대장경(大藏卿)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오가사와라제도 개발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상신하였다. 일본 정부는 5월 12일 도민(島民)의 무휼(撫恤), 토지 단속, 군함 왕래 규칙의 제정을 내용으로 방략안(方略案)을 작성하였다. 타이완 침공이 끝난 후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정책 추진은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발의해 추진하

포커스 II

였다. 1875년 8월 23일 외무경(外務卿)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와 파크스 주일영국공사는 오가사와라제도의 귀속 문제를 다시 논의하였다.

파크스는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의 ‘속지(屬地)’인지를 물었다. 데라지마는 오가사와라가 일본에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관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파크스는 “멀고 가까움으로 소속 여부를 정한다면 류큐섬은 중국의 속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가까운 섬’이 관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제도에는 영국·미국·러시아 등도 선박과 관리를 파견하고 국기도 게양해둔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거론하였다. 데라지마는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령인 근거를 명확하게 파크스에게 제시할 수 없었다.

1875년 11월 21일 일본 정부는 외무성·내무성·대장성·해군성 소속 관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을 현지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오가사와라제도에 파견하였다. 파견 관리는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 외무성), 고바나 사쿠스케(小花作助, 내무성), 하야시 마사아키(林正明, 대장성), 네즈 세이키치(根津勢吉, 해군성)였다. 다나베와 고바나는 앞서 막부가 파견하였던 간린마루에 탑승하여 오가사와라제도에 도항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일행은 11월 21일 요코하마(橫濱)에서 출항하였고, 24일 지치지마 후타미항(二見港)에 도착하였다. 관리들은 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소집해 성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조사한 후, 지치지마와 하하지마에 영주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관리를 파견했던 네 성(省)은 연명으로 ‘오가사와라섬 착수 방략 견적서’를 제출하였고(1876년 1월 27일),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제도를 내무성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해 10월 17일,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항 규칙’과 ‘오가사와라섬 세칙(稅則)’ 등 단속규칙을 제정하여 12개국 공사에게 회람하면서 섬에 대한 관할통치

“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제도를 내무성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해 10월 17일,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항 규칙’과
‘오가사와라섬 세칙(稅則)’ 등 단속규칙을 제정하여 12개국 공사에게
회람하면서 섬에 대한 관할통치를 통고하였다.
”

를 통고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자국민과 이들의 재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호,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프랑스와 독일 등 10개국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877년 1월에는 내무성이 관할하는 오가사와라제도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초대 출장소장으로는 고바나 사쿠스케가 취임하였다. 소장에게는 직제상 “섬 전체 일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거류 내외의 인민을 보호하며, 개척과 기타 섬 안의 일반 사무를 장악”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1878년부터는 출장소장이 경찰사무와 재판사무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1880년 10월 초 사다요리신사(貞頼神社) 내에 설립된 <오가사와라섬 개척비(開拓小笠原島之碑)>에는 섬의 연혁, 구 막부의 순시, 메이지정부의 통치 경위, 다나베 다이치 등의 시찰과 개척의 의의가 기술되었다. 여기에 ‘오가사와라’란 섬이름이 붙은 이유는 오가사와라 사다요리가 섬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서술이 들어 있다.

이오도는 1891년 9월 칙령으로 일본 소속의 도서(島嶼)로 고시되었다. 미나미도리시마는 1898년 7월 24일 도쿄부 고시로 오가사와라 도청(島

廳) 관할이 되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1920년대에 들어 두 차례 군함이 측량한 후, 1931년 7월 6일 내무성 고시로 오가사와라 지청 관내에 편입되었다.

1880년 10월부터 오가사와라제도는 이즈제도(伊豆諸島)와 더불어 도쿄부 관할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오가사와라 출장소장은 “지사(知事)의 명을 받아 포고·포달·명령을 섬 안에서 시행하고, 거주 내외국 인민의 경찰·개척·식산 등과 기타 섬 전체의 일체 사무를 총괄”하였다. 1886년 11월부터는 출장소를 오가사와라 도청으로 변경하면서 출장소장도 도사(島司)로 명칭을 바꾸었다. 도사의 직무는 “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률·명령을 섬 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었다.

1877년부터 오가사와라제도로는 연 3회 범선이 다니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었고, 1887년부터 기선이 다니기 시작하였다. 갑신정변(甲申政變) 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김옥균이 오가사와라제도로 유배된 시점은 바로 여기로 기선이 왕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무렵이었다.

3. 오가사와라제도에 유배된 두 한국인 망명자

(1) 1886~1888년 김옥균의 유배

1884년 12월 4일 발발한 갑신정변은 ‘삼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선박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여 13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1885년 초 조선 정부는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서상우(徐相雨)를 일본에 파견하였을 때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반출해간 울릉도 목재의 반환, 김옥균을 비롯한 망명자의 인도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항



김옥균(琴秉洞, 『增補新版 金玉均と日本』, 線蔭書房, 2001)

이후 아직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선에 대하여 국사범은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만국공법 규정을 핑계로 대며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885년 말에는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를 비롯한 자유당 세력과 김옥균이 제휴하여 병력을 이끌고 인천항을 통해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 1886년 조선 정부는 지식영(池錫永)의 형 지운영(池運永)을 일본으로 보내 김옥균의 암살을 꾀하였다. 하지

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옥균은 일본 정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고, 자객 지운영은 조선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내무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김옥균을 일본 국내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886년 6월 11일 야마가타는 조선 정부에 ‘불쾌감’을 유발하고 일본의 “치안과 외교상 평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김옥균에게 이달 27일까지 국외로 퇴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김옥균은 보름의 말미를 요청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갈 비용을 급히 마련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김옥균의 친구 가운데 “1천 리의 대양 너머 무인도 호칭이 있는 오가사와라제도로 보내지는 일을 가련하다고 여겨 여비를 주선”하려는 자가 있기도 했으나, 여의치는 않았다. 결국 그는 요코하마 외국인 거류지에 있는 그랜드호텔에 머물다가 8월 7일 일본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고, 다음 날 도쿄부로 넘겨졌다. 일본 정부는 김옥균을 오가사와라제도로 유배보내어 다른 정치세력과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
일본 정부는 김옥균을 오가사와라제도로 유배보내어
다른 정치세력과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일본 신문은 오가사와라제도를 ‘원도(遠島)’나 ‘절해(絶海)의 고도(孤島)’라고 지칭하였다.

1886년 8월 9일 오전 6시 반 시나가와(品川)에서 오가사와라제도로 출항하는 슈고마루(秀郷丸)에 탑승한 김옥균에게 이의고(李誼果)가 동행하였다. 유혁로(柳赫魯), 정난교(鄭蘭教), 신응희(申應熙)가 슈고마루까지 따라가 이들을 배웅하였다. 김옥균 일행은 악천후 등으로 배 위에서 고생하다가 같은 달 29일 오가사와라 후타미항에 겨우 도착하였다. “평소 거동을 시찰하고 정기 향해 때마다 자세히 보고”하라는 훈령에 따라 김옥균의 오가사와라 생활은 오가사와라 출장소장이 정기적으로 내무성 등에 보고하였다. 섬 생활을 시작한 김옥균과 이의고에게 일본 정부는 ‘난민구조규칙(難民救助規則)’을 적용하였다.

김옥균은 지치지마에 거주하면서 독서를 하거나 바둑을 두며 소일하였다. 그와 바둑을 두려고 일본의 바둑 명인 혼인보 슈에이(本因坊秀榮)가 오가사와라제도까지 찾아오기도 하였다. 조선과 일본 내의 소식은 오가사와라제도까지 종종 왕래한 유혁로가 가져왔다. 김옥균이 오가사와라에 있던 동안의 생활과 인적 교류는 금병동(琴秉洞)이 관련 자료를 추적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김옥균은 섬 내 소학교 학생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를 잘 따랐던 소년 와다 엔지로(和田延次郎)는 1894년 김옥균이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홍종우(洪鍾宇)에게 암살을 당한 호텔까지 동행하여 그 광경

을 목격했다. 오가사와라의 아열대성기후에서 류머티스로 고생하던 김옥균이 오가사와라제도를 떠난 것은 1888년 7월 29일이었다. 일본 정부가 김옥균을 보낸 다음 유배지는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였다.

(2) 1902년 유길준의 유배와 김옥균의 거주 흔적

유길준은 1880년대 초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설립한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유학하였다. 1883년 보빙사 민영익(閔泳翊)과 함께 미국에 건너간 그는 덤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에서 수학하다가 갑신정변 발발 이후 유학을 중단하고 유럽과 수에즈운하, 동남아 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유폐되어 있는 기간 중 자신의 미국 유학 경험과 일본에서 입수한 최신 지리서적 등에 기초하여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저술하였다. 1894년 조선 정부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할 때 정계에 복귀하였고, 내부대신까지 올라가 단발령 등 각종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발발로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붕괴하면서 역적으로 몰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01년 유길준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조직한 혁명 일심회(革命一心會)의 혁명 거사 계획에 가담하여 귀국을 도모하려 했다. 하지만 1902년 들어 이 계획은 밀고로 실패하였다. 사건에 가담한자들 가운데 장호익·조택현·김홍진 등은 참수형에 처해졌고, 오세창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유길준의 동생 유성준(兪星濬)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이 사건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사건 관계자 유길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상신하였다.

1902년 5월 4일 경시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유길준은 퇴거 처

포커스 II

분을 받아 6월 4일 도쿄를 떠나 오가사와라제도로 가야 했다. 그는 하하지마의 오키무라(沖村)에 있는 가네가와 도조(金川藤造) 집에 체류하였는데, 휘호등을 써주면서 소일하였던 것 같다. 유길준이 써준 휘호는 가네가와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하치조시마 역사민속자료관에 기증되었다고 한다. 그는 김옥균이 머물던 지치지마의 옛 집까지 찾아가 시를 지었는데, 「구당시초(矩堂詩抄)」에 한 수 남아 있다.



유길준(고려대학교박물관)

쓸쓸한 정자는 아득한 바닷가에 있고
지난 십 년을 되돌아보니 옛일이 티끌이로다
정원의 화초는 주인이 떠난 줄도 모르고
그 시절 봄인 듯 푸르고 푸르구나

『모지신보(門司新報)』 1902년 11월 6일 자 기사를 보면, 유길준이 지치지마의 오키우라(扇浦)에 체류하면서 이 시를 읊었던 곳은 오키타마 다메키치(扇玉爲吉)의 집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를 통해 “세상사와 연을 끊고 칩거하면서 고기잡이 불이 보이는 곳에서 한가로이 생애를 보내고 있다”는 유길준의 근황을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김옥균에 비해 유길준이 오가사와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김옥균처럼 무더운 섬의 날씨에 건강이 나빠진 유길준은 육종윤(陸鍾

“
1902년 유길준은 퇴거 처분을 받아 오가사와라제도로 가야 했다. ... 『모지신보』 기사를 통해 “세상사와 연을 끊고 칩거하면서 고기잡이 불이 보이는 곳에서 한가로이 생애를 보내고 있다”는 유길준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다.
”

允)을 통해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에게 연락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청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길준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1년 정도 체류한 후 하치조시마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1906년 3월까지 3년 동안 체류한 후, 도쿄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07년 7월 순종이 즉위하고 일본 망명자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지면서 귀국할 길이 열렸다. 8월 12일 유길준은 장박, 이진호 등과 함께 도쿄를 출발하였고, 시모노세키(下關)를 거쳐 16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망명길에 오른 유길준은 오가사와라제도, 하치조시마 등의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1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박한민(朴漢珉, Park, Han-mi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한국근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상호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 조약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개항장 해관 같은 기구에 주목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 감염병 예방 등을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 국립해양박물관

백승옥 부경역사연구소 소장, 전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박물관 개황

지구(地球) 표면적은 5억 2000만 km²이다. 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보면 ‘지구’라는 표현보다는 ‘수구(水球)’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천이나 강처럼 이동 중인 물은 고작 0.08%에 불과하고, 대부분 물은 해수(海水)이다. 해수, 즉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인류 역사에서 바다를 잘 활용한 집단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활용과 이용 계획이 없다면 미래는 없다. 활용과 이용에 대한 계획과 실천은 그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국립해양박물관(이하 ‘해박’)은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박은 2012년 5월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해 7월 9일 개관하였다. 2006년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6년간의 준비를 거쳤다.

“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인류 역사에서
바다를 잘 활용한 집단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존재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

선진국의 박물관 개관 준비 기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은 성공적이었다. 개관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는 관람객 수 제한이 있었지만, 2023년 초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물론 박물관 운영의 성공 여부는 관람객 수의 많고 적음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해박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박의 설립 근거는 국립해양박물관법(법률 제14804호, 2014.10.15 제정, 2017.10.19 시행)에 있다. 이 법 제1조에는 해박의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해양 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 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박물관은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이다. 부지 면적은 45,386m²(13,729평), 연면적은 25,870m²(7,826평)이다. 박물관 건물은 비정형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형태로 건립되었다. 총사업비 1,268억 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1,143억 원이 민간자본이며 정부 재원은 125억 원이다. 자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20년간(2012.5~2032.4)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체험! 역사현장



국립해양박물관 구조(국립해양박물관 제공)

박물관은 앞에서 말한 설립 목적 아래 “해양 역사와 미래가 융합된 꿈과 희망의 공간”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양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해양박물관”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핵심 가치로는 “선도·융합·혁신·포용·지속가능”을 제시한다.

박물관 안에는 법인 직원으로서 박물관 직원 60여 명과 운영사(사업 시행자) 소속 직원 60여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박 임직원의 정원은 모두 65명이다. 관장과 운영본부장이 임원이다. 직원은 관리직(행정직)이 26명이며, 전문직(학예직)이 37명이다. 조직은 2실 8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은 기획예산팀·인사노무팀·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실에는 학술연구팀과 전시기획팀·유물관리팀·교육문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운영본부장 직속 홍보전략팀이 있으며, 사업에 따라 TF팀이 꾸러지기도 한다.

2. 주변 경관

해박을 소개하면서 그 주변 자연경관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박이 있는 부산 영도는 예부터 목마장으로 유명했다.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甄萱)’ 기사에 견훤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게 선물로 총마(驄馬)를 보내는 기사가 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고려사』 ‘태조 세가’에도 보인다. 이에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말이 절영도 총마(絶影島驄馬)라고 적혀 있어 영도의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절영도는 영도의 옛 이름이다. 총마는 회색털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말을 말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영도를 목도(牧島)라 불렀다. 우마를 기르는 섬이란 뜻이다. 목마장이었던 영도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섬이다. 해박은 그러한 영도의 동쪽에 위치한다.

해양박물관답게 바다에 접해 있으며 정면으로는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가 펼쳐져 있다. 오륙도를 돌아가는 수많은 배들을 볼 수 있는 곳에 해박이 자리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박물관의 정면 약간 오른쪽으로 아치섬 조도가 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 섬이다. 왼쪽으로는 부산 북항이 멀리 보인다. 박물관 바로 옆에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부두가 있다. 이곳에 크루즈선이 접안해 박물관 건물과 나란히 있으면 그 자체가 환상적이다. 박물관을 관람하고 나와 크루즈선을 보면 누구나 그 배를 타고 먼 세계로 여행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 해박이 지향하는 바다.

3. 규모와 소장 자료

박물관은 모두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대형 강당과 해양도서관이 있다. 전망 좋은 도서관에는 2024년 4월 현재 기준 5만 5,220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양 관련 도서는 1만 5,695권으로 전체 도서량의 28.42%에 해당한다. 2층에는 해양어린이박물관과 기획전시실이 있다. 3층과 4층은 상설전시실로 그 규모는 6,020m²이다. 2012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80여 회의 기획 및 테마전시를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서는 온라인미디어전시와 같은 언택트 전시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3, 4층의 상설전시실은 2023년 말 리모델링을 하여 재개관하였다.

소장 자료는 2024년 4월 현재 기준 2만 9,112점이다. 전시실에 전시된 유물은 1,000여 점이고, 나머지는 9개의 수장고에 재질별 적정온도에 맞춰 보관하고 있다. 자료 수집은 구입 및 기증과 기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입의 경우 연 2~5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관련 유물인 「수창시(酬唱詩)」, 「시고(詩稿)」, 「봉행시고(奉行詩稿)」, 〈화조도(花鳥圖)〉 4점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된 백자철화운룡문호(白磁鐵畫雲龍文壺), 농기(農旗), 『조행일록(漕行日錄)』, 〈한글조선전도(朝鮮全圖)〉 등 유물 20여 점이 있다. 소장 유물 가운데 항해도구 및 해도첩, 지도류 등은 가히 세계적 수준의 고품격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바닷길을 안내하는 항해도구로는 영국의 아담스(Adams) 일가가 제작한 지구의(地球儀)와 천구의(天球儀) 세트를 들 수 있다. 제작자인 더들리 아담스(Dudley Adams)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영국의 대표적인 지구의·천구의 제작 가문을 이루었다. 해박 소장 지구의·천구의는 카르투슈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4점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 20여 점이 있다. 소장 유물 가운데 항해도구 및 해도첩, 지도류 등은 가히 세계적 수준의 고품격 유물이라 할 수 있다.

”

(Cartouche: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새겨 넣은 곳)에 1797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제작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지구의와 천구의 바닥 부분에 항로 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나침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구 의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탐험가인 제임스 쿡(James Cook)의 항해 경로, 사망 시기 및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및 주변 해역에 대한 기록으로는, 동해를 한국해(Mare Corea), 대한해협을 한국해협(Fretum Corea)으로 표기하고 있어, 제작 당시 서양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더들리의 해도첩 『바다의 신비(On the Mystery of the Sea by Dudley)』는 영국 출신으로 이탈리아에 망명한 로버트 더들리(Robert Dudley)가 1646년 메르카토르(Mercator) 투영법으로 제작한 세계 최초의 해도첩이다. 어떤 장소에서 출발하여 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메르카토르 투영법과 이를 반영한 해도는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따라서 메르카토르 투영법을 반영한 해도 제작은 전 세계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 즉 바다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해도첩의 등장은 기존의 포르톨라노(Portolan) 해도와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시대적 의미가 있다. 이 해도첩에 한국은 긴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이탈리아어로 “코라이왕국은 반도이다(REGNO DI CORAI e'Penisola)”라고 표기되어 있다. 동해는 “한국해(MARE DI CORAI)”라고 적혀 있다.

체험! 역사현장



박물관 전경, MI, 캐릭터 타미와 해버미(국립해양박물관 제공)

4. 주요 기능

해박의 주요 기능으로 학술 조사와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국내 학술조사를 16회, 국제학술조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도 10여 차례 개최하였다. 학술조사와 회의 등에 관한 결과물은 책으로 발간하였다. 2019년부터는 학술지 『해양유산(OCEAN HERITAGE)』을 발간하고 있다. 이에는 해양 관련 전문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2023년 5호가 발간되었는데, 6호부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가 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남해안 초기 어구에 대한 학술조사 후 그 결과물을 『남해안 초기어구』로 발간하였다.

2017년부터는 매년 해양인문학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해박 주변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KMI)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

박물관은 과거만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다. 유물이 품고 있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제시한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곳이다.

”

하고 있다. 강좌 내용은 ‘해양인문학총서’로 발간하고 있다. 총서1 『바다를 읽다』는 2017년에 바다와 인류문화의 관계를 다룬 ‘해양문화와 해양인문학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실시한 강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바다를 여행하다』(총서2), 『바다를 맛보다』(총서3), 『바다를 열다』(총서4), 『바다를 지키다』(총서5), 『바다를 그리다』(총서6), 『바다를 꿈꾸다』(총서7)가 발간되었다. 그 외 학예사들의 학술 역량 제고를 위한 콜로키움도 연 4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7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박물관의 인기도 높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바다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위해 휴관 중이다.

그 밖에도 해박은 사회교육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해양문화아카데미와 해양문화교육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각급 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밖 박물관교실 등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해박은 관람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감동은 창의성을 낳고, 창의성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박물관은 과거만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다. 유물이 품고 있는 역

체험! 역사현장

사를 통해 미래를 제시한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곳이다.



백승옥(白承玉, Beack, Seoung-ok)

부경역사연구소 소장, 전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경남 거창에서 몸이 났다. 부산대학교에서 학사·석사, 가야사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함안박물관 학예사,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거쳐 2023년 말 정년퇴임을 했다. 관심 분야는 가야사, 광개토태왕릉비문 탁본, 박물관학 등이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Vol. 9

Summer 2024

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9 Kim, Jong-geun

Guest Essays

History of the Korean Islands in East Asia

Ko, Seok-kyu

Focus I

Traditional Sinocentrism And East Asian Island

From the Symbol of Fidelity to The Patron Saint. The Story of Jeon Haeng Island in Our History

Kim, Jong-geun

Rise and fall of the Ming Military Camp Donggangjin, Established on the Joseon Island Gado

Jang, Jung-soo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sushim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Lee, Hae-jin

The History of Three Elite Patrols of Goryeo Encountered in Okinawa

Doh, See-hwan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Netherlands Seen from Dejima(出島)

Shin, Dong-kyu

Focus II

Age Of Imperialism and East Asian Island

Sakhalin Island and Anton Chekhov

Kim, Young-soo

The Three Islands, Port Hamilton, and Geomundo

Han, Seung-hoon

Ogasawara Islands, the History of Islands and the Exile of Korean Defectors

Park, Han-min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A Space Inspiring Dreams and Hopes About the Sea

Beack, Seung-ok

비매품

ISSN 2950-9696